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최 완 복
편집인 안 병 만
부간석일 군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대신문사
전화 (8)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3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292호
<순간>
1980년
1월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근하신년

외대학보 기자일동

신년사

살아있던 말들의재현(再現)

언제나 그랬듯이 80년 새해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우리앞에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망(待望)이라고 곧잘 부른다. 언제나 모든 비전은 오늘이 지리때문에 없기때문에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허황되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비전」앞에 오늘을 굴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올해의 비전은 작년, 재작년의 그것과는 전혀다른 차원의 것이다. 국민적 합의, 민주헌법, 정치발전, 자유민주주의, 학원의 자율과 자유화라는 구호가 바린 송봉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살아있는 말들이었으므로 그 말들의 재현(再現)은 역사적 귀결이다. 그러나 그 귀결이 역사가 예기한 것이기 보다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산물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인류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역사진보의 도도한 파도속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될 수 없는 진실이다. 인류역사를 통해 진보를 가로막았던 도전들도 수많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도전들로 인해 오히려 역사앞전에에의 신장(伸張)은 백배히 이어져 왔었던 것이다.

섭리의 시대를사는 인간화의길

우리시대에 있어 역사가 퇴보와 발전의 갈림 속에 있을 때 진보의 목소리는 곧 이단(異端)이기 쉬웠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불순도 이단도 아닌 자연인 것이다.

신의 섭리, 역사의 섭리는 정상인지와 진실인 것을 정상(正常)되게, 진실(眞實)되게 놓아주라는 섭리(攝理)의 시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대망하는 것은 은닢것의 정상회복에 다름 아니다. 가로지고 배워왔던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는 정상을 찾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80년대의 「비전」속에 포함된 모든 소리들은 한순간은 생소하고, 아직 금기(禁忌)의 잔재들이 채 가시지않고, 정상되지 않는 한 그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처럼 차츰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초적으로 우리속에서 사멸되지않고 잠재해있던 것의 정상적 현현(顯現)이요, 회복이라 말려 마땅할 것이다.

인간이 새로와 져야 한다

사회·대학의 「진화」와 「정상회복」의 원리

인류역사는 또한 모든것의 정상회복을 위한 역사라 부르고 싶다. 어느 사회에서나 비정상의 어느 한쪽이 다른쪽의 정상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비정상적 사회일 때 비정상적 대학일 수 밖에 없었듯이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든 것의 정상회복이 있어야 올 것이다.

사회진화라는 「공동선」의 실현

비전은 「전망」이고 그것은 「기대」의 다른 형태이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욕시적 합의와 전제위에 개인과 사회는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그 밑음이 어느 한 집단이나 계층만이 소유하는 허위의식이 될때, 욕시적 합의는 그 기초부터 흔들 릴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시 감정들이 허에하게 대립할 때 사회진화의 지름길은 무회되어졌고 방해받아야만했다. 우리가 대망하는 사회진화라는 공동선(共同善)의 실현을 위해 구체도의 틀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듯이 마땅히 대학에도 모든 구체도의 개혁이 하나씩 뒤따라야하는 마땅도 바로 거기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회의 사회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일 바람이지 충분조건도 완전조건도 되지 못함을 보아왔다. 문제의 요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즉 인간인 것이다.

인간이 경신(更新)되어야만 한다. 경제의 근대화, 정치의 자유민주화,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인간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본명제에서 이탈될수 없다. 그동안의것은 분명히 상황의 인간에대한 과잉한 도전이었다고 믿기에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결과와 나타나 새로운 체제의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상부명의 미래를 부명에로 근접시키는 방편으로써 그것은 긴요하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는 거꾸로 사람들을 다시 형성시키는 상보(相補) 작용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인주화와 자유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직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즉 인간인 것이다.

인간이 경신(更新)되어야만 한다. 경제의 근대화 정치의 자유민주화,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인간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기본명제에서 이탈될수 없다. 연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속으로 자연스레 융해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인간경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신된 인간만이 비전담당할 자격있어

인간이 달라져야한다. 인간 하나하나가 달라지지않고서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 배척만이 그옥표가되는 욕에 논리가 대학, 사회에서 사라지기는 기대할수없는 것이다.

인간이 달라질수 있음을 믿는것은 희개의 논리, 사랑의 논리, 화해의 논리를 신봉하는 까닭이다. 상황때문이있다는 변명으로나 미래개발수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인간의 경신(更新)으로 보아야야 한다. 그리고 그들까지 용인할때 비로소 우리자신들의 인간경신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도 배워야한다.

상황의 도전은, 그것이 혁신할때 우리의 신념과 이념(信念 부여뜨리기 보다는 치심한 표면불 형성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설정한 「상황」은 항상 필요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동안의것은 분명히 상황의, 인간에대한 과잉한 도전이었다고 믿기에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결과

◇인간이 경신(更新)되어야 한다。경제의 근대화、정치의 자유민주화、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달라져야한다는 기본명제에서 이탈될수 없다。새로이 열리는 시대에대한 「비젼」「사회진화와 정상성의 회복」은 경신된 인간만이 제시하고 담당해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문제의 요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즉 인간인 것이다。

198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항

1. 모집학과 인원 및 시험과목

학부	전공학과	정원(명)	시험과목 및 배점
부의	아시아어학과	5	입학시험
	서양어학과	5	입학시험
	동유럽어학과	5	입학시험
	이스라엘어학과	5	입학시험
	터키어학과	5	입학시험
	베트남어학과	4	입학시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3	입학시험
	태국어학과	3	입학시험
	버마어학과	3	입학시험
	아랍어학과	5	입학시험
	서노독불영어학과	5	입학시험
2부	정무외교학과	5	입학시험
	서노독중불영어학과	5	입학시험
법과학부	법정치학과	100	계열별모집
사회과학부	무역학과	계열별모집	계열별모집
교육·사회과학부	통번역학과	5	입학시험
	국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영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불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독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스페인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이태리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포르투갈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러시아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아랍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서노독불영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서노독중불영어교육학과	5	입학시험

부문별	시험과목 및 배점
입학과	입수
	외국어 (1) 100점
	영어 130점
	수학 (1) 100점
선택과	없음
전형과	예비고사석차(총원수의 5%)340점
	합계 670점

2. 응시자격

① 1980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1980년 2월 졸업 예정자
② 1979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980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예비고사 석차가 상위 12년 이상의 학교 출신자로 1980년도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자격 있는 자
③ 기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자격 있는 자
④ 외국에서 12년 이상 해외거주하였거나 현재 해외거주하는 자로서 본교 입학처장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⑤ 재수생 및 삼수생 응시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신원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동일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임

3. 출원방법

가. 원서 교부 : 1980년 1월 21일(월) 부터 입학처 (서울특별시 광화문 1-1 동아일보사 2층 전화 : 723-5151 내선 132)
나. 출원서류 및 수속료 : 원서 대금 (1,000원 수표) 을 동봉하여 입학처로 우송할 것
①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방문접수) (출석 제출 장소 : 입학처)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진 4매를 붙이고 응시자의 동일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속료 (수표) 를 동봉하여 입학처로 우송할 것
②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 증명서 1부를 제출할 것
③ 원서접수 : 1980년 1월 28일(월) 부터 2월 4일(월) 까지 (공휴일 제외) 우편 또는 방문접수 (방문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④ 수험표 : 1980년 2월 11일(월) 부터 2월 14일(목) 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 (방문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다. 입학전형 : 1980년 2월 16일(토) 부터 2월 17일(일) 까지 (2일간)
① 예비고사 석차 (총원수의 5%) 340점 및 입학시험 (외국어 (1) 100점, 영어 130점, 수학 (1) 100점) 670점 만점 기준 고득점자 순 합격자 결정
② 합격자 발표 : 2월 31일(목) 부터 1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라. 합격자 발표 : 2월 4일(월) 10시 ~ 17시 사이 본교 입학처 (서울특별시 광화문 1-1 동아일보사 2층 전화 : 723-5151 내선 132) 에서 합격자 발표하여 드림

4. 선발고시

가. 수험표 : 1980년 2월 11일(월) 부터 입학처 (서울특별시 광화문 1-1 동아일보사 2층 전화 : 723-5151 내선 132) 에서 발급함
나. 고사장 : 1980년 2월 17일(일) 10시 ~ 17시 사이 본교 입학처 (서울특별시 광화문 1-1 동아일보사 2층 전화 : 723-5151 내선 132) 에서 발급함
① 응시자는 본인 명의의 수험표 및 주민등록증 (없을 때는 호적등본) 을 지참하여 입학처 (서울특별시 광화문 1-1 동아일보사 2층 전화 : 723-5151 내선 132) 에서 발급받은

「학원 민주화」 도래의 싹 움터

학생활동 자율화 향한 대학운영 논의 제적학생 현황 밝혀져,신학기에 복교

○…학원사태로 인한 제적생 복교문제를 학원 관심사 개선을 필두로 한「학원 민주화」문제가 밑 …○
○…진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신년과 함께 학교당국은 학생활동의 자율화를 근간으로 한 대학발전 …○
○…의 개괄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4년 이래 79년 12월31일까지 학원사태 …○
○…에 관련되어 '제적처분된 분대생은 모두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적학생들은 신학기에 일 …○
○…괄복교할수 있을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역시 학원사태로 관련 구속및 입건되었던 학생과이 밀접한 학생카지를 포함하면 학원사태 관련 처벌학생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적학생중 신학기의 복학대상자는 군에 입대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1명인데 이들을 포함하여 학기도중에 처벌된 학생들은 복학후 동료자장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민주화」를 전제한 학원 관심사의 개선에 관련하여 관계당국에서는 앞으로의 대학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진행중이며 학생활동의 자율화를 중점적으로 학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밑점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김옥길 문교부장관의 말표에 의해 금부 본대학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학생자율활동이 주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헤이되고 있다.

학생활동의 구체화인 요항인 서어클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서어클 등록자절에 있어서 기존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서어클의 성격을 살리는 방향으로 융통성을 기하는 방향과 함께 재정적보조도 신년에 클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어클학회지 발행및 접회하락화 등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학원관심사의 주요문제인 효국단 존속여부와 학내 언론의 자율화, 간행물 허가등에 대해서 안병만학생처장은 「학생회의 부활문제는 정부방침에 의해 종체적이고 일괄적인 제도적 조치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구 학생회 당시의 선거 과정들에서 일어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학생대표기구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학내 언론과 함께 최대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학보부국은 제적학생 복교등에 따른 학칙개정작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장의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학생처법규정도 대폭 완화함과 아울러 학생복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74년 이래 79년 12월31일까지 학원사태관련 구속 제적자 명단은 아래과 같다.

《광표안은 당시 관련사태》

▲이종민 : E · 2 (75.4.9시위) 용상원 : E · 4 (75.4.7시위)

이정택 : E · 2 (〃) 박영구 : E · 4 (75.4.7~9시위) 정민수 : I · 3 (〃·입대) 김학모 E E · 1 (〃) 최동열 : S · 3 (75.5.28 불법방송) 민병권 : I · 1 (75.5.25 선주보사건) 우성제 : I · 3 (〃·입대) 이범복 : 민정학부 I (〃)윤석렬 : P · 2 (〃)이원희 : C · 2 (74.4.3 민청학련사건, 75.9.1 제적) 박일서 : 상경학부 I (78.6.26시위·입대) 김천영 : 정외과 2 (78.9.4 학내유인물배포)

▲이외에 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사람은 광성권 (S · 3) 소순성 (C · 2) 인원근 (I · 2) 김남일 (N · 2) 등 4명이다.

신년하례식가져

새출발을 다짐

송구영신과 새출발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이 1월 1일정오 최한복학장과 김홍배대학이사장을 비롯한 150여명의교수와 전개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최학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참석한 교직원 일동에게 올해에도 변학을통한 의대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당부했다.

분교생본교에서 1년간 수학키로 당초계획변경,진통 예상돼

경기도 광주 가교사에서 수학할 것으로 발표되었던 응인분교 신입생이 련 이은 덤과소에서 1년간 수학하기로 결정되었다.

당초 예정됐던 광주 가교사에서의 분교생 수용계획이 환경오건상 교육효율을 기대할 수 없으며 본대학의 미의료미지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는 80년 내에 응인지역을 신학

상록학교 학예발표 구랍21일 강당서

본사 주림 이문1동 상록학교 (교장 · 박학선씨) 제4회 학예발표회가 구랍 21일 7시부터 3시간에걸쳐 본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부로 나뉘어 독창과 사낭솜, 발레, 연극공연등이 진행됨 이날 발표회에는 약500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산사를 아끼지 않았다.

상록학교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 대학생들 주축으로 또한 교사진이 중학과정을지도하고 있는 야학으로 76년 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행시7명 합격

재학생 4명

지난해 10월 종무처에서시행한 제23회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에 본대학 재학생및 졸업생 7명이 최종합격하였다. 총248명과 함께 금년 응시에서 합격할 이름의 명단은 아래과같다.

▲정성서 (P.A.79졸), 장진홍 (E.79졸), 윤선기 (L · 4) 장병일 (T · 79졸), 신범석 (S 4), 권경상 (T · 3), 이효준 (P.A · 3).

신입생 전형 2월 5일

총1,805명모집, 제2지망제 폐지

1980학년도 본대학 신인생 전형이 2월5일 실시된다.

2부와 응인분교 신입생을 포함하여 1,805명을 모집하는 80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원서 교부는 1월21일부터, 접수는 28일부터 2월2일까지 본대학 교무처에서 하게된다.

빙람 · 상경학부는 예년과 같이 계열별로 모집하고 제2지망제도는 올해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2부는 영어과와 경영학과가 5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증원되었고 정원40명의 노어과와 서어과가 신설되어 2부신입생 정원은 모두 54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응인분교는 영 · 불 · 독 · 노 · 서 · 아랍어과 각 50명씩 300명을 모집하며 예시경기지구 합격자에 한한다.

2월4일 오전 10시에는 수험생 예비소집이 있게되며 필답시험과목및 배점은 국어 I (100점) · 영어 (130점) · 수학 (100점) 으로 종전의 영어배점이 150점에서 130점으로 줄어듬에 따라 인시총점은 예시 340점을 포함 670점이 되었다.

예시 반영률은 작년49%에서51%로 다소높아졌는데 음예비고사 고득점자의 이점이 없어졌으며 76년 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편입생 다시 받아 들여

2·3학년에,학생들의 반응민감해

본대학에서는 77년 이후 모집하지 않고 있던 편입생을 80학년도에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

주간의 중국어과와 R. S. I. L과를 제외하고 2부및 전학부가 포함되는 금번 편입생의 선발은 2, 3학년에해당하는데, 학사편입에한한 3학년은 면접과 신체검사만, 2학년은 오는15일 선발고사를 치르게된다.

편입생의 모집에 대한 학교당국의 공식적 입장은 재학생의 군입대및 휴학등의 결원을 메꾸기 위한 조치라는 것인바, 전제당국자는 「교무행정 상의 문제」임을 들어 결원현황과 「약간명」으로 뭐어있는 편입생의 선발인원을밝히지 않고있다.

신학하 교무처장은 「원칙적으로 정원의 한도내에서 결원을 중원하고 지원이 미달되는 학과의 경우에는 일정수준을 심정하여 선발할것」이라고 말했다. 금년들어 모든 사립대학이 편입생을 받아들이는 추세인데 편입생모집에 대해서 학생들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처하에 대한 우려와함께 이들의 희의적인 반응은, 중단해 오던 편입생모집을갑자기 실시한다는 점이다. 학교측의 원칙적 주장을 수공한다해도 77년도 이후 79년까지의 결원을 일시에 충원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운을 남긴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기왕 다시 실시키로 결정을 앞지른다면 엄정한 시험방보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전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편입생에따른 전체적인질적저하 및 관인학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본보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10월현재 2부재재적 학생중 약20%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학생이 결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취업률(남) 87.44% 작년 12.10현재,대학원진학늘어

학생처의 중간집계에 의하면 금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들의 취업현황은 79년 12월 10일현재 남학생 6백53명중 5백71명이, 여학생 1백66명중 84명이 취업이 확정되어 각각 87.44%, 50.60%의 취업률을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볼때 남학생의 경우 예년과 같이 무역, 제조, 일반화사 부문에 1백49명으로 가장 몰리고있고 보험 · 금융회사 (34명) 와 국가및 국영기관 (30명) 에도 높은 취업성향을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원진학예정자는 1백33명이나돼 작년 60여명에 비해 현저한증가율을 보이고있다. 이에 대해 한계자는 「이제 한계자는 대학원증설 교육이 장조되고 있는 주세에 이번 편입생 선발에 따라 이를과 함께 주간에서의 결원 대부분이 편입생으로 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방학중 특강 활발

스키·서예강습등 신청 쇄도

동계방학중 각종 특강및 강습을 위시한 학생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문문특강(12. 10~1. 10) 과 Time특강 (12.10~2.16) 자동차운전강습(12.10~1.15) 등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서예한문특강 (1. 8~2. 7), 스키이강습회 (1. 25~1. 31), 조정부특강 (12. 17~2. 28) 등을 이미 많은 신청을 접수하여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극반에서는 구랍 중순경부터 「의의의할연」에 대비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제24회 영어연극 (4월20일공연예정) 연습도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중동학술발표회

아랍문화관에서

본대학 박림박교수 (터어키어과) 와 김용선교수 (아랍어과) 는 구랍 18일 아랍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중동학회 (회장 : 유경열 본대학부설 중동문제연구소장) 주최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고려대 김용기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표회에서는 「80년대의 한국과 중동」이라는 주제하에 정치, 경제 문화학 측면에 대한 주제발표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학에의 회귀(回歸)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의 예시는 역사적 결과에 대한 생산적인 관계가 이뤄져 있인지 보여준다. 「한사람의 존키호테를 동장시켜 새시대에 대항하여 싸움을시키는 것과 자신의 패배를인정하고 새 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 동의에서 새 시대에 한 서보를 독려하며 대학의 재건에 정진해야할 때이다.

▲물론 역사적인 결과로 빚어진 구시대의 종말이 곧 새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면의 서장은 역사의 결연성을 심감시키고 있다. 국가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바라는국민의 어망이그 밑뚜이, 밑전은 대학에도 외아함을 믿는다. 그것은 호도(糊塗) 된 「리바이어댄」의 질곡 (桎梏) 에서 시름앓던 70년대 대학의 위상 (位相) 으로부터 「본연의 대학」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상황의 논리에 쉽욱과 굴절 (屈折) 을 강요함하면 한시대가 갔다면 이미대학의 명료는 오연 (傲然) 하다. 지난날 학원에서, 엇갈린 목계 (默契) 의 선상을 표류하며 오가면 조심스런 소문은 역사과정이 빚는 집연의 산물을 지향한 개연화일을 우리는 보아왔다. 이제는 설 신과 좌절에 익숙해진 유세한 서보를 독려하며 대학의 재건에 정진해야할 때이다.

▲물론 역사적인 결과로 빚어진 구시대의 종말이 곧 새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기대의 전위 (前衛) 로 넘겨필가 저정부며 앞선다. 이것역시 단련된 피에의식의 주산 일는지 모르나 「안정」과 「질서」, 「화합」과 「신뢰」 등의 단어는 한시바삐 제자리를 찾아야 필것들이다. 자율과 자제의 속성이 그렇듯이 보려적인 선 (善) 은 「상호」관련 (動態)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것은 항시 비신심과 위화감만 높일 뿐이다.

▲사물각의 올바른 전개를 조화와 균형으로 합축한 「아나토기아」는 현상 (現象) 에대한 전체적 의지의 집약점이면서 방법적으로 무쇠 (無色) 치 않다. —뻐어도 방법론을 발재상아 그것 자체를 부쇠화 (無窟化) 하려는 도박 (賭博) 된 생각의 밑아만 상재 (孤獨) 필 수 있다면. 성도 (聖都) 의 성과을 앞에 두고도 하느님의 악속을 고지 (告知) 한 「에레미야」의 밑음 이상의 신념이 결실함때이다. 이제 대학은 「대학인의 손에 의해서」라는 그 연연 (遙遠) 한 소리들이 합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곽해성기자>

「외대의 향연」개최지 변경

25~29일 광주·부산에서

제5회 「외대의향연」 행사가 방초 예정보다 1주일 늦어진 1월25일부터 수원을시작으로 광주, 부산, 전주에걸쳐 29일까지 각지역별로 거최된다.

처음 개최지로 예정되었던 전주에서는 수원과 함께 법역시파전만 열린게 되고 대구는 취소되었다.

매년 번역시파전을 비롯하여 연극공연, 번역시낭송, 초청강연, 지방대학의 찬조출연 등문단탐최등으로 구성되는「외대의 향연」행사의 금년 연극에는 「장 · 아누이」원작의 「도적들의 무도회」를 공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심찍인 개최지인 광주와 부산은 지난해에도 대선파동 때 개최되지 못 했는데 개최지가 중복되게 된 것은 지방 문화계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특히 지역동문의 협조가 아쉬웠다는 중론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 방송국의 협조를 얻어 제6회 제민제 공연실황필름도 녹화 방영할 예정인데 각지역의 개최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광주 : 번역시파전—광주 문화방송국전시실. 1월25일~27일. 연극공연, 외대의 향연—광주학생회관. 1월27일 오후 1 : 30~9 : 00

▲부산 : 번역시파전—부산 힐파랑. 1월28일~28일. 연극공연, 외대의 향연—부산 시민회관. 1월29일 오후 2 : 00~7 : 00

▲수원, 전주 : 번역시파전—1월25일~28일.

우리는 이제 대망의 80년대에 막 발을 들여놓았읍니다.

지나간 70년대를 돌이어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80년대 미래를 전망하면서, 깊은 각회감가 지게 됨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나간 격동기속에서도 의연히 학문의 전당으로서 계속 발전

학문적 풍요 위한 노력 경주해야

◇최완복 학장 신년사

현실과 이상의 접근을

하여왔고, 학교구모나 학문의 질의 면에서 크게 향상된 세계속의 대학으로 도약하였읍니다. 결과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의대인의 생동하는 박이 파동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 과연 한국 의국어대학은 그동안 Unique and Best University 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성과에 만족하고 정체하여 배만할 겨를조차 없이, 보다 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읍니다.

2부대학을 개설한 이래, 본보이전을 대전세로 한 본교의 설립이 바로 금년을 즐있는 해로하여 이루어지게 됨은 우리 모두의 경사의 단계를 넘어선 저희대학이 성숙과 학문적 풍요를 향한 도다른 발걸음을 내 디디게 된 것입니다.

대학의 규모가 이처럼 급진적으로 성장된 데 자칫 경시되기 쉬운 면은 규모성장에 비양적 빙행되어야 할 학문의 질적향상의 면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우 (愚) 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학교당국, 교직원, 학생전원이한 마음으로 학문적 풍요를 향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되겠읍니다.

대학규모의 확대에 부응하여 전체지적으로 해당학술분야의 석학들을 본대학에 더수 유치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분위기를 더욱 심화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자세로 학문에 전념해 배우고 탐구하며 도전하는 학문인이되어야 하겠읍니다.

본명하 우리 앞에는 80년대를 향한 거대한 희망과 숱한 과제가 교차하여 놓여 있읍니다. 성급한 과욕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설혹 현실이 이상에 멀리있다하더라도 정착하게 인내하며 지혜롭게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해하는 의대인 여러분. 우리모두 합심하여 80년대에는 학문적 풍요속의 의대를 이룩합시다.

1980. 1. 1

학장 최완복

주체적 발전의 발판 쌓을때

웅비와 도약의 해

◇김홍배이사장 신년사

1980년 경신 (庚申)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대가족과 그 가정의 행복을빌는 동시에, 코나큰 소원 (所願) 을 성취하실 보람찬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 창조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지장된 시점에 서게 되었읍니다.

특히 이번 신년은 80년대의 첫장 (章) 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힘대한 포부와 신념을 세우기 가다듬어, 학술한 전진과 발전을 위하여 굳은발판을 쌓아 놓아야 할 계제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1년동안 우리가 걸어온 자취를 돌아볼 때, 실로 발목빝 만한 발전과 쇄신을 이룩하여 게꼬 25년이라는 연륜에 부끄럽지 않은 학풍 (學風) 을 수립했고, 의대가 지향하는 교육의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부대학과 동역대학원의 개설은 특수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본대학의 소임과 사명을 한층 앞이하여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대가족의 그 가정의 행복을빌는 동시에, 코나큰 소원 (所願) 을 성취하실 보람찬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 창조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지장된 시점에 서게 되었읍니다.

특히 이번 신년은 80년대의 첫장 (章) 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힘대한 포부와 신념을 세우기 가다듬어, 학술한 전진과 발전을 위하여 굳은발판을 쌓아 놓아야 할 계제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1년동안 우리가 걸어온 자취를 돌아볼 때, 실로 발목빝 만한 발전과 쇄신을 이룩하여 게꼬 25년이라는 연륜에 부끄럽지 않은 학풍 (學風) 을 수립했고, 의대가 지향하는 교육의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부대학과 동역대학원의 개설은 특수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본대학의 소임과 사명을 한층 앞이하여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의대가족의 그 가정의 행복을빌는 동시에, 코나큰 소원 (所願) 을 성취하실 보람찬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대학이 새로운 이정표 (里程標) 를 마련하는 계기로서 큰 뜻을 가지고있읍니다.

시대적 사회적 주세에따른 필연적인 요청으로 응인분교를 설치하여 의대의 교세 (校勢) 를 지양에서 지양에까지 발장하게 되었읍니다. 이정을 본대학의 역사에 발전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본대학의 특성이 한층 빛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하 (現下) 의 국내외적 제반정세를 주시할 때, 대학 운영에도 만만찮은 난제가 닥쳐 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진 (金) 의대인 여러분, 우리가 이미 쌓아 올린 대학의 기반은 우리의 단결된 역량으로써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수와 학생이 오로지 연구와 면학에 전념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룸 직 발점할 때 대학의 이념과 사명이 유감없이 구현 (具現) 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최대의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을 튼튼히 우리의 학문을 육성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의욕인 합해가, 되기를 다같이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새 년 인사를 맡겠읍니다.

1980. 1. 1

이사장 김홍배

견안사경을 따라시력 광신안경 ▲백내도장용시 ▲교도도근시 ……광신(주)안과1층(☎5559)

호림社

希臘悲劇
아이스킬로스 · 소포클레스 · 에우리피데스 · 에우리피데스

4 3 2 1

1979, 제16회 韓國文學作家賞 受賞作品!

徐基源 長篇小說 朝鮮白磁 마리아像

전개이 가져온 윤리적 파탄과 인간성 사실을 격나라하게 분석 · 고발하여 전후과 기수로 등장했던 徐基源이 4·19 와 더불어 한국근대사의 현장검증을 재개하여 오늘의 사회구조를 극명하게 조명했던 「前夜祭」, 「馬鹿列傳」등 일련의 역사소설에 이어 내어 놓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

4×7판 340페이지 · 값 1,700원

韓椋出版社 서울 中區 貞洞3街62-15 PHONE 261-8298 263-4598 267-2723

삼연사의 책들 70)9471/833)2676

韓龍煥 小說集 또 다른 나라 1,500원

李振雨 小說集 바람난 벽돌 1,500원

尹賢鎭 短篇選古 幻想의 날개 1,500원

화제의 베스트셀러

대학생활의 혁명! 大學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 이 책은 우리가 〈대학〉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명쾌한 인생론.

□ 대학생은 물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명쾌한 인생론.

□ 韓龍煥이 새롭게 쓴 신선한 小說集 觀念과 現實을 照明하는 새로운 地平.

□ 韓국문단의 거수 短篇選古 작품집 생활의 아픔과 슬픔을 그려낸 이야기들!

□ 추격과 강도, 개미와 거인, 꿈이 파노라마 知性과 官能, 환상과 놀라운 상상력 놀라운 이야기들!

가톤 다이조/全永器 譯/1,500원

현대사회의 政治·經濟와 매스컴이나 廣告와의 力學關係는 무엇인가.

매스컴과 廣告

커뮤니케이션 調査硏究所編

● 46倍版 270頁 ● 값 3,000원

大學文化社 ☎73-3759

Published in English

好評裡 再版 発売 開始!

오토피아 〉 Oughtopia Young Seek Choue

慶照大学校 総長 趙永植 著

哲学이 고갈된 現代社会의 고민을 풀어줄 20世紀의 새로운 哲学書!

〈人類社会의 再建〉을 저술학으로써 독일철학회장 프리츠-요아힘 폰 린텔렌 박사, 모나물리 硏究責任者 라들로 박사, 노벨賞 受賞者 하지스 박사 등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絶讚을 받은바 있고, 또 世界人類学会에서는 최고명예의 "人類章"세계대학총장회에서는 "世界学術大賞"을 받은 바 있는 趙永植 박사는 이번에 또 다시 문제의 巨作 Oughtopia를 출간하였다.

本書는 새로운 哲学観 主意生成論에 입각하여 東西古今의 모든 철학을 비판하고 全来和理論을 개발하여 우주의 実在와 現象의 変化의 심오한 원리를 究明해냄으로써 현대인의 思想的 苦悩을 풀어줄 宇宙観·世界観·人生観을 확립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人生을 고민하고 人類社会의 將来를 염려하는 뜻있는 知性들이여, 20세기 현대의 삶이있는 모든 분이 이 한권의 "全来和理論을 알아 실천해 나가는 人類歴史와 人生, 그리고 人類社会의 앞날을 바로세워 보자.

값 2,200원

"I read your profound and wise analysis and advice for mankind. Permit me to say that your wisdom is great and that as a modern philosopher you are unsurpassed."

Dr. Charles Huggins, Nobel Laureate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U.S.A.

We now suffer from an overdose of pragmatism combined with generalized but vague pessimism. Now we must catch up on the inner, spiritual domain. What we now need is a spiritual revolution. Here come together with the ideals of Chouse, Chardin, U Thant, and of other contemporary spiritual leaders, who can perceive the nature of the human conditions in its totality. Young Seek Choue's work achieves its full significance in helping humanity grow toward a full maturity as a conscious and global species.

Ervin Laszlo
Project Director, UNITAR

An abstract of this important work appeared in the Journal of the Canadian Peace Research Institute and aroused interest throughout the world. Professor Fritz-Joachim von Rintelen, President of the German Philosophical Society and an internationally renowned philosopher, enthusiastically recommends this book as an invaluable critique of modern civilization, as well as a unique guidebook showing in concrete terms the direction in which mankind should move.

乙酉文化社 Kyung Hee University Press 서울특별시 龍山区 壽松洞 46-1 電話 74-3515·73-8153·72-9154 対象 927069番 966-1244 967-3091~5

80년대 첫 아침, 특집 대담

「다원적 참여구조」 확대로 국민적합의 이뤄야

민주주의 문제 해결로 평화적 통일 실현이야

유정렬 교수

(유정렬 교수 (정외과)
대담 김갑민 (본보편집장)
기록·정리 김형민 (논설부기자)

—김갑민—민주정치체제의 운영은「국민력 합의」와「다수결의 원칙」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라 볼 때, 최근에 광범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위「National Consensus」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다수결의 원칙」에서 볼때 양쪽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찬·반의견을 받아들 것을 의미하는지요.

▲유정렬—민주주의에 있어서는「다원적 참여구조」의 확대를 통해서만 국민력 합의에 도달할수 있다고 우선 말하고 싶어요.

「국민력 합의」의 성격은 한나라의 정통성이나, 한나라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절차(즉 합법칙)를 논의할때 이해되어 왔 중요한 성질의 것으로 정당이나 국민투표등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국민투표가 제대로의 음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봐요. 심지어는「국민투표는 독재자의 전유물」이라는 주진국명 을어기지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따라서「국민력 합의」라는 의미는「국민력 합의」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의 참여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요.

아울러 국민력 합의를 숫자적으로 나누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합의의 입장이 어떤 극단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는 없다는 것도 법무에 새야 할 것입니다.

—국민력 합의를 전제로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것이 정부형태 특은 권력구조문제 즉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그것인데요, 일부 정당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중심제를, 또 정치학자들 사이엔 내각책임제를 많이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박정희의 의견이 정당지도자들의 주장과상치점이 있다고 보는데, 정치학자의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유—제가보기로는 어떤 극단론은아닌것 같고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2원적 집정부형태」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과「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제의 장점을 가미하는 것이 논의의 정립인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국민력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들의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정사가 이를 입력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헌법개정을 논의한다는 그 시도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지 아직 40년도 채 안되는데에 서구와 비교해서 민주주의 토착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국민력 어방을 전제로 볼때, 민주주의를 할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추어 갔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우린나라정치의 특색중 하나는 독재지향적인 국한 부정방법이었고 일제시대에 일본이라는 민족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독재의 정당성을 찾을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소위「우국지사명」이라는가 하는 그런 방법이 허용될 수는 없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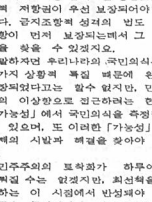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 같이 극한투쟁의 반발 아닌반발에「팔려통과」로의 독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지요.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적 저항력이 우선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공지조항적 성격의 법도 이런 조항이 먼저 보장되는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은 어려가지 상황적 특질 때문에 완전히 성장되었다고는 할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이상향으로 접근하려는 현재의「가능성」에서 국민의식을 측정할 수도 있으며, 또 이러한「가능성」에서 문제의 시발과 해결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최선책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하는 점들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향한「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과거 헌정사의 오점들이 당연한 것처럼 묵과되어서는 안됩죠 않나더만.

▲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갈등과 조화는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필요성」을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지요. 가령「왜 없어야 할 것이 등장하게 됐는지」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단은 문제를 공정적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고 가장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에 민주주의의 모미가 있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선(次善)책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데에 있겠지요. 그러나 시행착오는 전제해야 하겠지만 그 착오의 반복을 거듭해서는 안되겠지요.



유정렬 교수

오던데 민주주의의 법은 영원한「Bible」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고 언제나 평화적 사회변천의 조항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 사회변천을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주주의 체제가 반농은 필수요건이라는사실을 우리 헌정사는 말하고 있지 않나요?

▲유—한마디로 문제해결의「반대 세력」을 포용한다는 의미 인데 이는 UN헌장에도 명문화돼 있는 조항이지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반복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장치와 제도는 선행돼야 하지만, 운영하는 소수세력의 책임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위정자는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합니다.

아울러, 국민의식이 높은것에서 독재가 있을 수 없듯이, 국민은 늘 경계를 게어보고, 국가를 업려하는「적극적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 려인 요인, 구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동남아정세에 비추어 볼때 이 지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칫 배신기 생겨 스마네정(事大主義) 은 경계해야 겠지요.

▲유—미국의 입장도 그나라의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지하겠지요.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유리한 변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체성이 선행 돼야 할것이고, 타각적인 외교를 벌어 나가야 겠지요.

카네데통령 방한시 어느반전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만큼 정치발전을 기대한다」고 한 말은 미국의 대한관 (對韓觀) 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볼이해요.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에 복음한「대학사원심사」에 대하여 한마디 하시지요.

▲유—대학의 관심사는 한마디로「대학의 자율」를 튼튼히 수 있게는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신중한자세가 중요하며, 교수도서 장년한이 연구에 한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오랜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나, 착오의 반복은 지양돼야

경제개혁의 실패요인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보여

흐루시쵸프「시기상조적 대중주의」위험성 초래

이글은 1979년 10월 25일 본대학 소련일 동구문제연구소 (소장 : 조규환 교수)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요약이며, 필자 Kimura씨는 일본 북해도 대학 소련 문제연구소의 정치학 교수이다.

브레즈네프, 정치국 회의의 중재역 수행

생산수단……이데올로기상 중립적 산물

◇최근의병설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업적인 집무를 계속하고있다.

Ph. D: Hiroshi Kimura

1. 브레즈네프주의(Brezhnevism)란?

레닌주의(Leninism)나 스탈린주의(Statinism)라고 일컬 되듯이 흐루시쵸프주의(Khrushchevism) 클라스의 분리된 개념으로 설정은 상당히 회의해이며, 브레즈네프주의(Brezhnevism) 역시 독특한 개성 부재및 무미건조하고 활기없는 사건가 내지 사무원스타일의 리더십으로 인해「브레즈네프주의」로 개념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브레즈네프의 생각을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입장으로인해 그의 정책, 논선, 스타일을 분석대상으로 채택했으며 아울러 복잡을 명확히 하고저 흐루시쵸프체제와 비교, 양자간의 지속성과 변화의 분석에 시도했다.

브레즈네프의 투드려진특징은 지속력인측면으로 고도의 생산성 제고원칙에서 흐루시쵸프의 「공업화촉진」과 「물질적 유인」(Material incentives) 에 의존한 정책을 중심하게 계승하고 있고 비지속성으로 흐루시쵸프에 의해 지원된 「공공성 원칙」(Public Principle) 포기를 들수있다.

「공공성원칙」의 원칙은 특히 스탈린시대에 경시되었던 대중을 국가의 정치, 경제및 문화적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이다이다. 말이나 행정부의 직책부여가 아닌 인민재판의 부활 인민자위대 활용등 대중주의(Populism) 의 실책들이 미하는것으로, 즉 타시일해서 전인민의 국가(all-peoples state) 개념에 의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이론으로의 퇴치를 뜻하는 것이다.

흐루시쵸프의 시기상조적인 대중주의 사상은 엘리트계급에대한 경시풍토 내지 심지어 이들에 부여된 이익및 특권에 도전하는위험성 초래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었다.

선임자의 실패교훈을 피특한브레즈네프는 공공성원칙을 버리고 대신 개별책직업의 안정성과 엘리트집단상호간의 행정적 안정성과 관련된 육구종족지향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극적 정책정향의 변화로 현브레즈네프체제의 「리더십과 지도력」 기반은 확고히 구축되었다.

이를 예증하고 있는 자료로서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의 잔존비율을 보면 흐루시쵸프통치기인 1956년의 20차당대회시 62.4%, 1961년 22차시 49.6%에 비하여 브레즈네프시대인 1966년의 제23차에서 79.4%, 1971년 제24차 76.5%, 1976년 제25차당대회에 83.4%가 위원직을 고수했다. 더우기 1971년~1976년중 사망자를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90%이상이 변동없는 것으로 이는 현저한 보수주의를 수반한 엘리트안정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브레즈네프주의의 또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기본원칙의 타협을 통한 다양한세력간의 공평유지이다. 스탈린시주 확기해인 변화로서 소비에트 사회의 다양한세력 및 기관과 전단들간 그들의 소리가 정책결정형성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기시작한 집인데 흐루시쵸프와는 달리 브레즈네프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일개 독재자보다는 고위동료기관의 지도자로서의 존재에 만족하고 있는듯하다.

보도에 의하듯이 1960년 브레즈네프 정치국회의에서「중재자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고권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알수있겠다.

브레즈네프는 또한 사회주요 제도뿌거관 (당장치, 국가관료, 군부, 경찰, 경영자, 지식인등) 간의 일개조정시도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군부와의 관계에있어서 그레치코와 투입자 유스페노프 국방상을정치국정회원및 서기로 승진시킨사실은 브레즈네프의에 방프 외교정책및 전략무기제한협상과 같은 문제처리에 군부의 압력을 상쇄시키는데 불가피한정도로도보이나 민간인인 유스페노프의 국방상임명은 브레즈네프와 군부와의 제휴내지유합정책의 표명을 뜻한다.

이상과 같은 현상에 대해 호우(Jerry Hough)는「제한된「제도적다원주의」(a limited institutional pluralism) 내지 럼머(Darrell Hamma)의 관료적 다원주의」(bureauratic pluralism)로 특징화하고 있다.

2. 80년대의 도전 (국내문제)

다양한 사회 내지 집단간의 지나친 균형을 강조하는 브레즈네프의 정책은 앞으로 수년후의 과정될 문제에대해 현재의 부동성이나 현상유지 집근정향을 과감히 이탈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본다

브레즈네프 도는 그의 후계자가 당면할 주요문제로는 첫째 에너지문제이다. 소련은 에너지자원에 있어 98%를 자급자족할 수있다는 신화가 CIA및 서구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해 깨어졌으며 아울러 채금에 있어 경제성 결여는 무용함을 입증해주었다.

소련은 기초에너지자원의 80%가 시베리아에 극동의 냉토대에 매장되어 있으며 석탄, 기계, 정토한 소비재에 대한 이자를 정했다. 이는 밥스주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경영자의 주도권장악론만아니라 소비자에의 해 구입되도록 양질의 재화생산을 위한 위험마저 예 상되었다.

1965년의 경제개혁이 기대에 어긋난 원인은 탁월과 경영자에 대한 책임보상및 꼬르이기자 브레즈네프간의 정치적 경쟁가능성 등이며 가장큰 실패의 원인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개혁의 장화는 정치체제와 연계되경제문제에 해결을 의미한다로 일컬어에 배격 없지기 은 별이 되었다.

소련경제의 곤경을 탈개하는 타른 방도는 외국식 방및 소비재와 서방선진국지 않고 있는데 반해, 브레즈네프의「데탕트」는 경제적 협력조장과 두 개의 상이한 사회적 체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만 투영한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데탕트 외교정책은 서방선진국과 경제적 협력 추구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이해에서 유래하고 있다.

현 데탕트정책의 목표고랑 필요성에서 전략적 기능을 실린다. 일반적으로 소련은 거의 모든 목표를 성취하는데 군사적 장제수단에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군사력을 중시하고있다. 소련군사력 정치-외교력 기여수정을 기대하고 있을은 잘알려진 사실이며 외교가 안보기능을 수행할수 있을 신뢰나 주관된다.

이 정의의 새요소는 현 역학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소비에트체제의 정통성 인정이 모스크바와떠방되를 추구하는자들에게 최소요구 조건으로 인지되고 있다.

소비에트체제의 정통성은 군사력에의해 보호되는 국가안보이해의 핵심이며 브레즈네프의 데탕트의 목표중 은 국가안보이해와 소비에트체제 정통성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군사적인 과중한 부담을 미는데 있음을 는리해으로 수공할수있다.

4. 브레즈네프 이후

브레즈네프이후 소비에트 정치발전에 있어 상상될수 있는 변화양상으로서 는는 ①현상유지 ②부분적인 다원주의 ③정치적 자유주의 (④권위주의 ⑤체제의 붕괴 등 예측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이들 시나리오 가운데 하는것은 지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먼저 현단계 요약 하면 1980년대의 소련정치체제는 오늘과 큰게 다름의 같지 않을 현상유지정향의 체제가 됨것이다. 소비에트체제는 브레즈네스키가 지적하듯 전차 「과두적 석화」(Oligarchi Petrification) 의 전망과 브레즈네프주어의 「복지국가 권위주의」(Wellfare-state authoritarianism)을유지할것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소련에 갖숙히 구축된 억압요로인해 급격변화나 이탈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선 먼저 브레즈네프의 직후 후계자는 브레즈네프의 이주 유사한 라이프가 림정으로 생각한다. 마살의 연금처럼 젊은세대는 현저도용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외부세계를 잘알고 있지만 엘리트, 선발과정상 이들의 권력장악 보장이 없어 전망생성과 같은 장황변화가 없는한 동의력 리더십은 오래 보존될것이다.

다음은 지배불 만족할수 있는 정치적 이익면에서 고찰해 이미 일러한바와 같이 현리더쉽이나 차기리더쉽이 당면하는 난제가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복잡할것으로 본다. 이는 복합적인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리더쉽으로 관심을 돌릴때 상기해야할 일은 사회집단에 대한 당지도자의 책임이 증대될것이라는 점이다. 비일리(Seweryn Bialer)의 제시처럼 당이 사회나 일반화된 요구와 정연종들 하지는 입지만 독특한 요구를 가진 사회분파를 분리, 상호 대치시켜 동원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유지시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듯이 할때조정에 대한 소비에트 리더쉽의 능력은 확고하게 보장주세지.

다음엔 전통과 정치문화면에서 분석하면 러시아인이나 소비에트 대중은 그들의 운명을 가름하는 강력한 외세에 대해 순종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체제의 수월성과 건강, 안전, 교육, 복지시민 및 물질적 생활수준 개선 등과 같은 부문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는 하다. 그들은 정부에 맡겨진 기본복인 물질적 필수품과 신체적 안정이해에만 하여 체제와 무인의 동의를 하는있는듯 하며 체제에 대항한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것같다.

현 브레즈네프체제의 리더쉽은 브레즈네프이 프레처럼 「복지국가 권위주의」로 특징화된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관단되며 그 무게자도 대중과의 이러한 무인의 계약을 지속하는는 한 어려운 문제는없을 것이다.

한편 소비에트 정치문화 이면에 숨어 있는 「바람풍성」은 앞으로의 리더십이 그들에 의해 지속되기 권위주의를 상실할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과생기능한 정치적 영향력과 물질적 이익간의 새로운밥의 상관관계에 기인하는것 입니다. 실제로 기대하기는어 렵다.

결요로 브레즈네프하의최고지도층에 있어 고령연상은 한 이탈은 장래에 광범한 교체가 불가피하여 이는 복지국가권위주의의 영원한 안정을 보장할수 없다는 것과 공산체제의장기적 생존능력에 불공분요소임을 지적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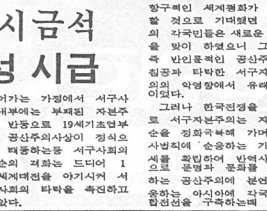
비록 오늘날의 이탈자는 소수이지만 그들의 비판은 젊은세대및 광범한 계층에 점차파급될수 있으며 이를 타협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때 지도층은 곤경에 빠질것이나 브레즈네프의 후계자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신년 논단

역사진보의 필연성

정 병 한

◇숙대교수·역사학 역사방치에 중심됐던 경향이 농후하다.



◇인류의 가치관 정립으로 역사발전을 이뤄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5백년 내지 10만년전의 아득한 태고시대만 하더라도 인류는 일반동물과 별차없는 일종의 야수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러나 인류가 발달해가며 피면서 급속히 두뇌발달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의·식·주등 생존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원시무기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된 단계에서 비로소 인류는 야수생활을 벗어나기 시작하여 불(火)을 사용하게 됨을 계기로 인류는 야수와는 전이한 인간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수렵생활을 거쳐 유목생활과 더불어 농경생활을 이룩하기시작했을 무렵부터 세계의역사는 고대문명을 전개시켜 가면서 서서히 발어지기시작한 것이다. 취락 즉 인간의 문화공동은 혈연중심의 취락생활로부터 그 공동사회를거쳐 사회문화사상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것이다.

서구에 있어서는 『영그로 색슨족』 『타틴족』 『앤글로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이 그때 표면인 실력이며 동양에있어서는 『인도족』 『한족』 『한민족』 『일본민족』 등이 그 대표적인 실력이 바 강인한 부명력과 지혜로운 분파창조력이 구비됨 민족만이 발전된역할 수 있다는 역사의 목식는 바로 역사방치에 중심한 민족만이 능히 존속발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비약이 없으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로 역사방치일 뿐만 아니라 역사법칙은도 한 자연법칙의 일환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지구가 우주법칙에의해 지배되듯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또한 지구에 적응하는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엄연한 사실에서 볼때 역사방치이 자연법칙의 일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귀결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순천자흥하고 역천자필망이라고 갈파한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바 여기서말하는 천은 바로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진리를 겸한 복합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역사법칙의 일면을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Ⅱ. 역사발전의 방향

동서양에 있어서의 문명과 문화발전의 단계를 비교검토해 보면 13, 4세기(중세)까지는 분명히 동양이 서양에 앞서 있었으나 중세이후는 서양이 동양을 앞도하여 갔음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동·서양 양사회를 지배하게 되어 마침내 산업혁명을 거쳐 재화획득의 수법으로서 비약적인 생산수단을 장만하여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인 영기원료의 항구적인 확보와 판매시장의 획득확대를 위한 식민지정복시대로 돌입했던것이다. 15세기이후 서구에서 발발한 항해술은 18세기초 현대적 서구열강의 동양침입을 미속 격화시켜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아속상서의 식민지정복전이 본격화하게 되어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본질인 영기원료 항구적인 확보와 판매시장의 획득확대를 위한 식민지정복시대로 돌입했던것이다. 15세기이후 서구에서 발발한 항해술은 18세기초 현대적 서구열강의 동양침입을 미속 격화시켜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아속상서의 식민지정복전이 본격화하게 되어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본질인 영기원료 항구적인 확보와 판매시장의 획득확대를 위한 식민지정복시대로 돌입했던것이다.

즉 일차세계대전은 서구사회와 일본이 본합 되어 전개한 식민지재분배를 위한 열강들의 탐욕에서 유인했고, 역사법칙에 반역한 전쟁이었다.

그리나 2차 세계대전은 서구사회의 모순의 폭파와 일본제국주의의 아욕이 상호작용되어 발발된 전쟁으로서 역사법칙을 고수하려는 연합국과 역사법칙에반역하는 이론바 구축국과의 투쟁이었다. 2차대전에 연합국의 승리로 종언 피어 나는 세계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던 세계의 각국민들은 새로운 비극을 맞이 하였으나 그것은 즉 반인륜적인 공산주의의 침공과 탁탁한 서구자본주의의 악영향에서 유래한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구자본주의는 자기모순을 정화국복해 가며 역사법칙에 순응하는 기본태세를 확립하여 발역사법칙으로 문명과 문화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분연히 궐기하는 이상아에 각국제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여 공산주의의 정면침입을 저지시킬 수 있었으나 그 최전선의 일익이 바로 한국의 휴전선인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특히 공산주의를 자유진영의 타협된 역량으로 정면으로 분쇄 시키거나 혹은 공산주의진영의 내부모순의 폭발로 자연붕괴를 기대하는것도 가능한 일이겠으나 그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인간사회에서의 공산주의소멸은 역사적으로 보아 필연적이라는 그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근거하는 사상적이론상의 모순과 더불어 현재세계공산주의국가군의 생태가 반역사적본질이어나라 인류사상 그유에를 찾아볼수 없는 반인륜적이라는 사실때문이다. 인간은 본래동물성과 정신성을 겸유하는 이른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는 바로 인간만이 갖춰한 정신성인바 이정신성을 인약표현한 바로 인물이라는 어휘로 대체될수 있는것이다.

대구나 역사의 법칙이 인물을 기준으로 하고 역사의 발전방향도 또한 인물의 법칙에 있음을 세계사가 이를 역연히 입증하는 바로서 이보다 더 명확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주체가 사상체를 중심 제하는 것이 인간과 인물 때문에 존재한다는 철리에 바주어 보면 공산주의의 운명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공산주의에 매을투영하는 자유진영국가사회에서 공주체이어야만 공산주의의 해법이 보다 확실해진다는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를 소멸시키기위하여 우리 한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각국사회내에 잔존하는 반인륜적 요소를 분리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유일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역사철과 현실생에서 유리된 독선체인 정치관 경제관과 고유 문화관을 파갈리 지양되고 부국부 민익 빈의 지표로 방임통제 방임통제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합리적운영을 실현함으로써 고유의 특색화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소등이 원활히 공국의 승리를 거둘수 있는 지상조건인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우방제국과의 제휴협력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주성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유머니즘이 건전하는 풍토조성을 촉구하는 작업이 우리가 이법해야하는중대조건인것이다.

요컨대 80년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20세기초이래명제에 이르기까지 인물복지유를 유린해 온 제국주의 및 공산주의에 도전으로서 금해 온 우리 한민족은장신체국주의의 멍에에 짓밟혀 복으로 멸절하여 그 존재를 거쳐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바로 인물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적 풍토에 적응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정립하여야는 과업달성에서만가능할 것이며, 이 과업달성만이 연연히 흘러가는 역사발전에 우리민족이 공헌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법칙은 민족 생존을 위한 시금석

자주적 인간성 회복의 풍토 조성 시급

제하는 인간 또한 지구에 적응하는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엄연한 사실에서 볼때 역사방치이 자연법칙의 일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귀결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순천자흥하고 역천자필망이라고 갈파한 소이도 바로 해 온 조부의 본질을 비교해 보면 중세이전까지는 동양사회가 서양사회보다 역사방치에 적응되었었고 중세이래 근대초기까지는 서양사회가 동양사회보다 역사방치에 더 적응되어 있었으며 근대중기이후 현대까지는 서양사회가 보다 더 스탈린적명을 통하여 유럽사회는 만인평등의 민주사상이 정점하여 사회발전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는 자유·정치적 발전에 고무된 유럽인들은 금상첨화격으로 중앙집 자유와 풍족한 재화를 갈망하게 되어 마침내 산업혁명을 거쳐 재화획득의 수법으로서 비약적인 생산수단을 장만하여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발전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인 영기원료 항구적인 확보와 판매시장의 획득확대를 위한 식민지정복시대로 돌입했던것이다. 15세기이후 서구에서 발발한 항해술은 18세기초 현대적 서구열강의 동양침입을 미속 격화시켜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아속상서의 식민지정복전이 본격화하게 되어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여 자본주의 본질인 영기원료 항구적인 확보와 판매시장의 획득확대를 위한 식민지정복시대로 돌입했던것이다.

즉 일차세계대전은 서구사회와 일본이 본합 되어 전개한 식민지재분배를 위한 열강들의 탐욕에서 유인했고, 역사법칙에 반역한 전쟁이었다.

그리나 2차 세계대전은 서구사회의 모순의 폭파와 일본제국주의의 아욕이 상호작용되어 발발된 전쟁으로서 역사법칙을 고수하려는 연합국과 역사법칙에반역하는 이른바 구축국과의 투쟁이었다. 2차대전에 연합국의 승리로 종언 피어 나는 세계평화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던 세계의 각국민들은 새로운 비극을 맞이 하였으나 그것은 즉 반인륜적인 공산주의의 침공과 탁탁한 서구자본주의의 악영향에서 유래한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구자본주의는 자기모순을 정화국복해 가며 역사법칙에 순응하는 기본태세를 확립하여 발역사법칙으로 문명과 문화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에 분연히궐기하는 이상아에 각국제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여 공산주의의 정면침입을 저지시킬 수 있었으나 그 최전선의 일익이 바로 한국의 휴전선인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특히 공산주의를 자유진영의 타협된 역량으로 정면으로 분쇄 시키거나 혹은 공산주의진영의 내부모순의 폭발로 자연붕괴를 기대하는것도 가능한 일이겠으나 그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인간사회에서의 공산주의소멸은 역사적으로 보아 필연적이라는 그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근거하는 사상적이론상의 모순과 더불어 현재세계공산주의국가군의 생태가 반역사적본질이어나라 인류사상 그유에를 찾아볼수 없는 반인륜적이라는 사실때문이다. 인간은 본래동물성과 정신성을 겸유하는 이른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는 바로 인간만이 갖춰한 정신성인바 이정신성을 인약표현한 바로 인물이라는 어휘로 대체될수 있는것이다.

대구나 역사의 법칙이 인물을 기준으로 하고 역사의 발전방향도 또한 인물의 법칙에 있음을 세계사가 이를 역연히 입증하는 바로서 이보다 더 명확하고도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주체가 사상체를 중심 제하는 것이 인간과 인물 때문에 존재한다는 철리에 바주어 보면 공산주의의운명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공산주의에 매을투영하는 자유진영국가사회에서 공주체이어만 공산주의의 해법이 보다 확실해진다는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신년특집 80년대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구현

한 영 환

<중대교수·행정학>

「롤러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역사의 현인은 물론이고, 오늘날 온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권의 변동과정에서 그 새 권력자들이 권좌빠트리지 않는 주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한 나라의 정치생활에서 이룩해 내야할 가장 중국의 가치며 이상(理想)은 사회정의의 보다 나은 구현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정의란 흔히 쓰여지는바 평등(equality)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 형평(equity) 등의 이념을 포함해서, 인간육구중에서 가장중요하고 사회의 욕망중에서도가장 고귀한 어떤 덕목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종교적 계율에 가까운 보람있과 이상주의적 성격때문에 사회정의의 내용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런것이라고 고집어 말하기가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대한 보다 심용히 천근은 어떤 정태적 균형(靜態的均衡) 상태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어느 특정시대의 개인이나 사회가 인식하게 된 부정과 실의에 당면해서 이 부당한 압박과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장해 나가려는 행동적 과정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정의의 구현도 한 사회를 함께 삶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의와 삶의에 대한 인식과 향렬에의 공감을 이룩하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위대한 사회혁신의 행동과 쾌나갈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70년대말에 제3공화국의 막(幕)을 내리고, 이제 제4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이즈음, 「사회정의」의 구현이 우리 국가갈전과제의 최우선순위의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욱은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것은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수 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유막과내용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역사의 현인은 물론이고, 오늘날 온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권의 변동과정에서 그 새 권력자들이 권좌빠트리지 않는 주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한 나라의정치생활에서 이룩해 내야할 가장 중국의 가치며 이상(理想)은 사회정의의 보다 나은 구현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정의란 흔히 쓰여지는바 평등(equality)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 형평(equity) 등의 이념을 포함해서, 인간육구중에서 가장중요하고 사회의 욕망중에서도가장 고귀한 어떤 덕목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한 영 환

<중대교수·행정학>

말뜻으로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종교적 계율에 가까운 보람있과 이상주의적 성격때문에 사회정의의 내용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런것이라고 고집어 말하기가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대한 보다 심용히 천근은 어떤 정태적 균형(靜態的均衡) 상태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어느 특정시대의 개인이나 사회가 인식하게 된 부정과 실의에 당면해서 이 부당한 압박과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장해 나가려는 행동적 과정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정의의 구현도 한 사회를 함께 삶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의와 삶의에 대한 인식과 향렬에의 공감을 이룩하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위대한 사회혁신의 행동과 쾌나갈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70년대말에 제3공화국의 막(幕)을 내리고, 이제 제4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이즈음, 「사회정의」의 구현이 우리 국가갈전과제의 최우선순위의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욱은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것은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수 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유막과내용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역사의 현인은 물론이고, 오늘날 온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는 정권의 변동과정에서 그 새 권력자들이 권좌빠트리지 않는 주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곧 한 나라의정치생활에서 이룩해 내야할 가장 중국의 가치며 이상(理想)은 사회정의의 보다 나은 구현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정의란 흔히 쓰여지는바 평등(equality)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 형평(equity) 등의 이념을 포함해서, 인간육구중에서 가장중요하고 사회의 욕망중에서도가장 고귀한 어떤 덕목들을 포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구현

한 영 환

<중대교수·행정학>

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종교적 계율에 가까운 보람있과 이상주의적 성격때문에 사회정의의 내용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런것이라고 고집어 말하기가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에 대한 보다 심용히 천근은 어떤 정태적 균형(靜態的均衡) 상태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어느 특정시대의 개인이나 사회가 인식하게 된 부정과 실의에 당면해서 이 부당한 압박과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장해 나가려는 행동적 과정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정의의 구현도 한 사회를 함께 삶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의와 삶의에 대한 인식과 향렬에의 공감을 이룩하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한 위대한 사회혁신의 행동과 쾌나갈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70년대말에 제3공화국의 막(幕)을 내리고, 이제 제4공화국의 출범을 위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이즈음, 「사회정의」의 구현이 우리 국가갈전과제의 최우선순위의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욱은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것은 대체로 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수 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유막과내용

사회정의의 구현 위해서

위대한 「사회혁신의 행동」이 선행

사회복지 형평 확대의 제도화 마련 위해

참여와 평등이 확장돼야

윤이 되어져 갈 무렵부터, 70년대 후반 이후의 우리나라만 전전하는 구상안에 있어서는공태의 능률적상의 전략요목부터 조금 밥피해서, 형평(衡平) 과 복지 (福祉) 같 중지에 주구하려는 이른바 「사회개발」의 의의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가운데에서 「사회개발」부문에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한 것이다.

60년대초 이래 강력히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 제일주의」가 그 자체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서도, 몇가지 우리 체제로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치적, 또는 사회문화적 문제점은 메태(胚胎)하였기 때문에, 무인가 종대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보충과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야의 기대와 요망하는 형성으로 인 이 정책전환은 정부내외에서 법 는 탄일이 쉽게 이해되고, 또 어떤면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의 노력도, 그 심원체계의 정비라는 대책심은 손도 대지 못한채, 사회개발에 대한 이념의 정립도 확립시키지 못하고 제3공화국은 그 정행한 종말을 고하면서, 이 모든 과제는 80년대이후의 제4공화국에 넘기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보다 정확 적절이로 표현했다고도 볼수있는 사회개발의 의의와 방향을 중심으로 몇가지 논의를 해볼 그 효력의 한계에 부딪쳐올때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천력 동력은 사회계층구조의 유동화와 그에따른 새로운 가치관 (價値觀) , 태도및 신념의 창출 (創出) 과 중원이라는 비경제적이고도 원천 심층적인 사회원리체 년수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적 측면으로서 이 문제가 좀더 깊이 다루어 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차츰일부의 경제학자 자신들 뿐만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정치학을 비롯한 여타 사회과학자들의 대거 참여에 힘입어 탐손한 경제발전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체제내에 구석구석 깃들어 있는 잠재적인 전능력장을 위한 사회 발전 단 내지 발전론의 일반화에로 까지 연결되었다.

좀은 의미의 경제 발전전략이 초기적 성장을 정함하고난 뒤에 당연한 두번째의 단계론, 인상(人賞) 또는총량규모의 국민생산의증대를 이룩한 뒤에도, 여타 복지가치의 증진은 반드시 뒤따라 이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급속한 경제성장 그 자체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이 발생하게 된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궤도를 같이해서 진행되는 공업화, 도시화, 인구성장및 기술의 진보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역행적 (逆行的) 현상, 즉 인간소의 (疎外) 와 심리적 낯선,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오염, 사회계층간의 긴장과 적화는 많은 사회문제의 대두는, 종래 경제발전이론에서는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부의 형평적 분배에단한 문제와 아울러 국가발전목표의 재구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때까지 국가는 단순한 부의 절량적 확대만 주진해 주던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하리라던 소박하고 단세포적 (單細胞的) 인 입장에서부터, 시민개인의 주거, 환경, 보건, 교육, 사회보장등과 같은 「생활의 내면적 질」(quality of life) 의 향상이라는 보다고차원의 복잡적 요구를 충족시키야 할 필요에 당면한 것이다. 이때에 경제발전이란 개인과 국가의 반립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 (手段) 으로단주되게 되고, 따라서 사회개발은 국가발전의 위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로서 이해되는것이다.

이러할이 사회개발의 개념이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시동력 국면에서 「인적 또는 사회적잠재능력요인의 축전과 개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선 경제발전이 상당히 진전된 다음에 당면하는 「배분적 형평」과 「참정권의 보호」라는 이념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미부분 근대화 과정의 초기단계에 처하고있는 나라들에게 개인적 복잡성과 정치적잠입을 야기시킬 근본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에서 맞은 근대화 전략은 시동기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리라 믿었던, 서구선진사회에의한 외생적 자극과 충격은 심상 한계적 효과를 나타냈을 뿐이고, 해묵은 전통사회의 기체를 타파하고 지속적 성장요력을 배양·동원하려면 신생국 사회자체 내부에서 충분한 선생적 요인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반성에서 사회개발의 제1측면이 인식되었지만, 막상 이러한 자생적 요인의 성숙과 동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도구를 개발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과제인것 같다.

그런가 하면, 사회개발의 제2측면인 참여와 평등의 확장인권의 존중, 부나 교육기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 혜택의 형평적 증대등에 관한 요구의 대두와 그 제도화는, 서구의경우, 3~4세기의 긴 시간을 놓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룩된것임에 반하여, 우리와 같이 진주 그것도 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이뤄다발 경제발전의 노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가치에의 요구가, 남북의 대립에서 오는 안보에의 요구과 함께 입시에 폭발적으로 밀어 닥쳤으니, 국가발전의 전략적 단계화나 목표의 우선순위의 설정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해방이래 35년, 한세대남짓한 기간동안에 세계의 공화국을 세웠다가 쓰라린 붕괴의 경험을 맛본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제 쳐어도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한일합방으로부터 100년하가 딥 2010년을 나타낼때서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살아 움직이야 할 기틀을 다져야할 80년대의 입구에 서서, 앞으로 닥쳐올 도전과 파괴와 함께 이를 흡수할수 있는 최소한의 주도력을 갖추고있음으로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우리 정치체제가왕면할 과제는 실로 엄청나다. 참여와 복지의 폭기적 확대를 부르짖는 국민의 소리는 연도이며 폭발적인 상황으로 내닫고 있고, 그러기 하면 반복의 뇌일에 대비한 긴장과 국제화의 가일층 심화란 폭풍은 두리 주변에서 한시도 떠나지않는 속에서도 방장 닥친 세계적 지원전쟁속에서 국민의 생업을 보조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살아 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참여의 확장에서 따를지도 모를 무이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울러 정치활동의 신속성과 생산성을 높여, 체제의 정통성과 효율성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유지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정치권력에 대한 대중적 신뢰 즉 공자가 일찌기 말한바 및는 「민심(民心)」의이념과만개함 리적 형평이념의 체질화를 더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지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아 오면, 이 시점의 우리가 당면한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행동노선은 분명해 진다.

첫째로 무엇보다 지금까지우리 체제가 떠어 온 밀전정책의 결과 나타난 바람직하지못한 국면들을 해소, 보완하는원리로서의 사회개발정책의 강화이다.

발전체제에의 참여와 배분참면에 걸쳐 개인, 집단, 지역,

민중에 의한 책임정치 실현

진 덕 규 <이대교수·정치학>

는 평범한 시민들의 책임있는 참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특히 직업정치가들에 의해서 점탐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실에다른 거하고 있다. 첫째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다. 정치가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한삶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정의롭게 배분해주는 것이어야 함은 고차서적인 이론에 지나지 않게되었다. 정의로운 가치배분보다는 그리고 삶의 새로운 가치를창조하기보다는, 그러한 당위적인 상황과는 거리가먼 정경을 보여주는것이 현대사회의 정치적 본질이기도 하다. 갈등을 해결해주고 통합해주는 사회적 조정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의갈등을 일층더 심화시켜 주면서 통합보다는 분열을 타협보다는 대결의 속성을 강하게 보여주는것이 곧 현대사회의 정치이기도 하다.

정치가 이처럼 어느 일방의 속성을 강하게 띄게 되고 선한 대다수의 시민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감을 보여줄 때 대다수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치에 대한 태도는 불심 이외는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둘째로는 정치 그 자체가 정사하는 힘의 폭이나 중력이 무한정하다는 것에서 생기게 되는 두려움을 들 수 있다. 현대 정치가 이처럼 그것의 인식에 있어서 심각할 정도의 불신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자연히 대다수 시민들은 오히려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게 되었다. 정치에 관여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위험의 증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는 정치와의 단절이 가장 현명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는 오히려 일반 대다수 시민들, 즉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정치가라는 일단의 특정인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단정짓고 말았다. 직업정치가, 그들은 곧 선한 시민들과는 다른 그 어떤 속성의 존재로 생각되어 그들만이 정치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고 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Ⅱ

정치가, 특히 직업 정치가는 누구인가? 그들은 선한 양식의 다수 시민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것인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적절한 비유의 한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할수 있을 것 같다. 「정치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어떤 것도 다 믿을수 있는. 즉 다도 며 심각하게 정치가를표현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잘 꼬며로 말할수 없는 인물은 정치가가 필수 없다. 또한 자기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이라는 있어도 국민의이익이 자기이익이 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지못하는 정치가는 한 사람도없다.

정치가를 이렇게 모사하고보면 우리는 한가지 자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즉, 정치가와 일반 시민과는분리 다른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다. 시민혜인 양식이나 시민혜인 가치와는 또다른 정치가혜 양식이 있고 정

80년대는 우리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것인가.

60년대, 70년대 연합교육서의 80년대, 80년대의 앞 10년으로서의 80년대 그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이 열리는 한 연대에 대해 각각의 연대기를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연대기마다 각각의 비전을 부여하려고 한다.

한 시대의 개화를 뜻하는 은갖 「비전」들은 곧 인간이 갈망해마할 「도전」의 민들의 공범이 함께 빚어내는 압축물인 것이다.

이러할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걸핏하면 책임정치라고 말한다. 우리가 책임정치라고 말할때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무한책임의의미요, 또다른 하나는 원상회복의 의미가 있다. 정치한번 정치가들이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일일 책임을지는 그 사실이 소명의 목적에 어긋났을 때는 엔날 그때도를 되돌려준다는 원상회복의 의미, 곧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의 능력이나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시행 착오로 생긴 피해자에게는 무한책임을 진다는것을 뜻한다. 사실상 정치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귀중한 인명을 다루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치의 무한책임은 정치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것으로 되어 있다. 책임졸린다는 정치가가 오히려 존소리로 군림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는 마치 불가피한 현상인것으로 호도하는 새 푸른 작태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뭣멋하게 자리를떠나고, 아니 그보다도 필요하다면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야할 정치가들이 수치심의 결여로 눈하나 깜짝하지 않은채 어전히 선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는 이미 인격파괴 상자임을 뜻하는것이다.

책임을 질줄 모르는 정치가 수치심을 결여한 정치가가 어전히 존소리로 떠들고 변화하는 상황을 자신의 권력유지에 이용하기 위해서 꿈분하는 상황속에는 정치의 책임감은 요원해진다.

그러므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알게하고 참회인을 깊수일

책임정치-무한책임, 원상회복의미

정치에서 책임감과 수치감은 표리관계

선한시민의 용기로만 책임정치 회복가능해

대의 정치는 그것의 무한책임의 형사를 일상화하고 있다. 즉 정치는 법사자정에서 수탁의 선정에서나 영향력 자금의 법위라는 면에서는 그나름의 자기제약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자기 제약성은, 설사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정치계층이나 정치권력소유자 자신에게 손실을 장요하는 것이 된다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의 내일아침 해가 뜨지 않는다고 해도 믿을수 있는 사람들 것이다고 그러기하면 또 이런 표현도 생각해 볼수 있다. 「정치가가 올다고 말하면 무엇인가 틀린 것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정치가가 틀렸다고말하면, 그것은 정치가에게는 해로운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모든 사람에게는 이로운 일이생겼다는 증거이다」 어쩌면 이 말은 정치의 어려가지 문제점에서 우선 먼저 지적 필수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말할수가있다.

정치가들의 수치심결여와 책임감의 상실이, 정치현실의 무책임성을 조성시켰다면, 일반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외면이나 무관심이 이를 촉진 가속화시켰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현대 정치의 무책임성은 정치가들이 저질러놓는 작위와 시는 인격을 회복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일은 정치가들 자신의 문제로만 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시민들의 용기로서만 해결될수 있는 일이다. 선한 시민들을 두려워할수 있게 하지 않고서는 정치가의 책임성 회복은 요원할 뿐이다. 선한 시민의 참 용기가 정치적 책임성의 부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가 될 뿐이다.

軍 행정병 모집

종로1가 서울극장 옆 유니타자학원

●인기 ~25세 · 소정교육 후 행정요원 및 행정요원 · 포후 · 해병 · 육 · 공 · 수 · 시청 · 사상 · 체 · 보병 · 사기 · 공병 · 정기 · 정보 · 기갑 · 포병 · 항공 · 수송 · 통신 · 보급 · 헌병 · 의무 · 군악 · 보충 · 훈련 · 병무청 · 상경 · 기업 · 전국 · 지역 · 직업 · 전문 · 기술 · 학교 · 공장 · 회사 · 단체 · 가정 · 개인 · 지원 · 접수 · 시험 · 합격 · 발표 · 입학 · 졸업 · 취직 · 진급 · 진학 · 진출 · 진급 · 진학 · 진출 · 진급 · 진학 · 진출

의 도전

신년 특집

다른 이름이다. 인류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며, 모든 도전과 응전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것들은 다시 역사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역사는 서로가 주체이며객체이다. 80년대의 역사는 어떠한도전과 응전들로 메꾸어져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예상되는 도전을 능동적으로 제시해보고 싶은 것이다.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안 (代案) 과함께. <편집자주>

근로자는 속죄양인가

서 론

경제학에서는 보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하여 경제활동의 불가피한 요소들이라고 조랑시키고 있다. 그리고 표준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는 그한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으로 결정되어 이렇게 결정됐때 생산물은 과부족없이 모든 생산요소의 보수로서 분배된다.

이제럼 재판적으로 결정되는 생산과정에서 재판적으로 보수율이 결정된다면 생산에참여한 근로자의 보수인 임금에 대해서도 희생적인 임금이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한다느니 하는말은 있을수없다.

그러나 생산과정에 인위성이 개입되고, 보수율 결정에 세력이 개입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단이 개재될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느니 희생되고 있다느니하는 주관적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고도성장메카니즘 속에서의 저임금정책

한국경제가 1962년이래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정책은 고도성장정책이라는 말로 요약하여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도성장정책이 국내시장을 대상으로는 주진될 수 없었기때문에 이 정책의 주도자는 수출부문이 되었다.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개발전략을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경제개발전략이 수출주도형으로 퇴기는하였으나 대외경제기반이 결여되고, 자생적 기술개발이 거의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은 인위적으로 창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외경경쟁력의 인위적 창출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저임금정책이었다.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정책의 메카니즘은, 국민적으로 표면하면종부한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도입한 자본과 원료로 수출상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의 주요 수단인 저임금정책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근로자 자신의 희생, 다른 한편으로는 저곡가정책에 의한 농민의 희생에의해 지속될수 있었다. 특히 저곡가 및 저농산물가격정책은 전통적 농촌경제를 파괴하여 이농현상을 가속화하였으며 이농민의 도시유입은 저임금노동력의 공급을 증대시켜 저임금정책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는 더욱많은 노동력을 수요하게되었고, 낮은 실질임금상태에서 노동력의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실질임금의 상승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7년과 1978년 임금 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을 앞지르게되자 1979년초 정부는 경제안정과 종합시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시책이 내 걸고 있는 것은 경제외과팔현상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책속에 임금상승억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차례에 걸친 수정책에 이안정화시책은 쉽게 내걸었던 긴축기조는 사라져 버리고 다만 임금인상억제만이 유일한 효력로 남아있게되었다.

근로자의 희생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상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메카니즘에서의 저임금의 역할을 개관해보았다. 이에 비추어 볼때 산업화과정에서 근로자의 희생이야말로 산업화주인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산업화과정에서 근로자의 희생은 저임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에 대한 간접적 보조금지급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임금에 의한 생산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해외에 대해서는 낮은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내소비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함으로써 수출산업은 지원을 받아왔다.

또 수출산업에 대한 막대한 금융및 재정지원은 내수산업에 대한 차별적 억제작용을 함으로써 국내 공산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인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러한 어려가지 과정을 통한 근로자의 희생으로 산업화가 추진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으로써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나타난 현상이 1970년대 후반의 실질임금상승이었다. 이것은 기업가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노동운동과 단체교섭권이 제도화로 국도로 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1979년 안정화 시책의 발표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조치와 발언들은, 주지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나타나는 임금인상압력도 정부와 기업가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태도가 아님가하고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즉 경제력이유로 발생을 2% 미만밖에 되지 않으므로 3%의 저성장하에서도 1인당 소득은 증가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는것처럼 임금 상승률을 15%에서 억제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25%라고 할때 실질임금은 약10% 감소하게되고 따라서 근로자의 1인당 실질소득이 그만큼 감소한다. 그런데 전체국민의 1인당소득은 증가하므로, 비근로소득자 1인당 실질소득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득분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역전되고 전평되게 된다. 그런데 실업률의 증가률은 억눌린 임금상승률을 능가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으로 지불되는 실질소득부분이 총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경제가 3%로 성장할때 임금으로 지불되는 실질소득부분도 3%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고용의 증가가 3%를 넘지않는한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실질임금율을 낮출 이유는 전혀없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3%라고 할 때 고용이 3%늘면 실업율은 불변이 된다. 그런므로 근로소득의 상대적 분배분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율의 상승을 방지하려면적어도 3%의 경제성장하에서도 실질임금을 낮출 필요가없고 이때 평균임금상승율과 같아 진다. 과거의 실적에서 볼때 고용증가율은 경제성장율보다 낮은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산업화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되어 왔기때문이며 이를 또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므로 저성장하에서 노동력의 고용증가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노동집약적부문으로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있을 따름이며, 실질임금의 하락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 **저(低) 성장하에서 노동력의 고용 증가율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노동집약적 부문으로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 임금의 하락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성장 및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는 어떠가지 방법을 써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보로 경제규모가 커졌고 근로자의 경제력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증대되고 희생의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저임금 의존적 경제개발에 항거를 일삼는 계층은 아직도 경제외적 힘을 이용하여서라도 과거와 같은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려할지 모르나 그것은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간단한 산술적 유희로 저임금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계사는 정당화될수없으며, 전국민적 호응을 얻어야 타개할수 있는 경제적 난국에 대처하는 정도라고 볼수 없다.

정 기 준

<서울대교수·경제학>

한 임금인상압력을 경제외적 힘으로 억제함으로써 산업화과정에서의 근로자의 희생을 더 연장시키려 하고 있는듯하다.

실업률 증가억제와 임금인상억제

현재 정부에서 임금인상억제의 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실업률증가 억제이다. 이논리의 허실을 검토해 보기로하자.

정부에서 주장하는대로 1980년 초 제2의 석유파동과 선진제국의 경기후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은 안정화시켜, 긴축경제이 아니라도 잠재성장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과거 10%수준의 경제성장율이 1980년도에는 3~4%수준으로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국내요인과 석유파동이라는 해외요인이 복합되어 20%수준을 웃돈 상태하는 율로 진행될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10·26사태이후 많은 정치적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정부는실업률의 증가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실업률증가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않는한 일인당 실질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구증가율은 2%내외로 되고 있는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것은 인간 출산자중의한사람이다.

이런에 불꼬부는 대학원 경원을 대폭 증원시킬수록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명실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로써 대학교수요원 배양을 위한 것이라하니 새삼 1870년대의 미국대학사활방불케하는것이 있다고하리라.

우리가 현재상으로나마 외국의 명문대학 발전과정을 단축해서 뒤쫓아가야 하는 일도 급하려니와, 또 한편에 있어서 외국의 주요대학은 보다 참신한 구상으로써 학문 연구에 가속도적인 진전을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세계주요 현대대학의 놀랄만한 진전에 비교는 도전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게커지도 연구실은 놓이 커져있고 강시도 연구의 템포가 업주지 않고 있는 외국의 대학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실제로 그러하고 있는것이다. 최근시간과 함께 모든 연구실의 놓이 커지는 경우와 일맥나 대조적인 일인가?

대학사회가 잠들고 있을때그 사회의 진전은 속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사회가 등요립 대 학문연구는그만큼 파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사회의 발전은 위협을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사회가오직 그고유한 사명의 완수 (完遂)를 위하여 잔잔한 학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까닭이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주인성 극복이야 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요. 80년대의 도전이라해서 좋을 것이다.

대학의 자유와 자율회복

Ⅲ

새로운 대학의 구상및 그실현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학사회의 개방력 성격이다. 종래의 대학은 이론바 로운 학원연구도시가 한 나라 안에도 및 개체 건설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와같은 학원 연구도시에서 대학이 중심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 수많은 여러 종류의 연구소가 있어, 연구정보센터도 마련되어 분야별로 연구정보 교환에 봉사하고도있다. 더우기 이러한 학원 연구도시에 있는 연구소 하나 하나는 그것 자체가 웬만한 대학규모만한 것이니 우리는 이 점에

한 기 언

<서울대교수·교육학>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욱에 건설중인 연구도시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의식해서 건설중인 것으로서 더욱 많은 수효와 대규모의 학원 연구도시 건설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세계는 대학이 연합하여 공동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건설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사회는 자금자족을 이상으로 삼아 온 것 같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는 비근시안적인 시설이 어느 대학이나 있게 되는 데, 그러니만큼 구체만 갖추었다는 것 뿐이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있는 것후도 많은 것같다. 그러나, 분야마다 경말 본격적인연구불 추진시키는데 있어서는연구시설 역시 그 규모도 커지면 막대한 경비를 투입해야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도저히 한 대학이나 두대학이 힘을 합쳐서도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 대학의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는, 이 플랫면 국립종학 부물관을 세워서 전국의 국립대학이 이용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실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국가 진흥하는 견지에서 나아가 세계 인류문화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대학은 자금자족에 자기만족을 할것이 아니라 진정 진리탐구를 위하여 연구시설의 공동운영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연구시설이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대학사회가 자유와 자율을 부인보다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바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대학사회의 본질과 성격에 비추어보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잔잔한 바다에서 장렬한 해군이 배양되듯이, 거물급 총장의 출현으로 해서 한국의 대학들이 새로운 대학의 이념및 유형의 창출이 가능해지고, 진정 자유와 자율로서 오직 진리탐구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잔잔한 학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대학인들의 자유의지에 희생시만 보장되는 일이기도 한것이다. 80년대의 도전의 과고가 높을수록 우리들 대학인의 대학사회 건설의 열도도 높아짐은물론이다. 자중자애가 요망되는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80년대의 대학

자유와 자율에 의한 진리 탐구의 장(場)으로

대학의 동요는 곧 사회 발전을 위협

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학이, 역사가 오래되면서도 새로우니만큼 초창기에 있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372년 고구려의 태학창건을 상고해서이요. 새롭다는 것은 을유광복 이후 한국 현대대학의 설립을 가지고 하는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오형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역사에 남을만한 거물 대학총장의 출현이다. 이를테면 하나도 대학교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엘리스톤 총장의 경우가 그렇못이 말이다.

그러한 거물급 총장은 외부로부터의 거센 파도를 막아내고 밀리를 내다보고 대학사회가 진정 진리탐구의 전당으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 되게끔 잔잔한 학해 (學海)가 되도록 학문적 분위기 조성에 절대적인 의 의를 기울일 것이다.

Ⅱ

80년대 한국 대학의 도전은 무엇일까? 단적으로말하여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주진성에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학형의창출이라고 하겠다.

세계적으로는 60년대가 대학사회의 격동기였었다. 이것은 과거 수세년 내지 백년간에 누적되어온 대학사회의 타성과 부조리에 대한 시정 요청에서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후 10여년간에 괄목할만한 대학사회의 신구상 (新構想) 이나왔으며 그것은 단순한 계획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각국의 대학이 그 규모의 광대함에 있어서나 구상의 참신성에 있어서나 놀랄만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외국의 유서깊은 대학에 비해서 너무도 연륜이 짧다는것을 의식해야 할은 콤플이거니와, 한편, 거금 20년간에 쾌기록인 발전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학들에 대해서도 크게 배워야야 하리라고본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적어도 100여년전의 미국 대학 정도라고해야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학도 그 무렵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학원중심대학로 주요 대학들이 발바꿈을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바드를 비롯하여 예일, 쿨럼비아 대학교등이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그간 미국 역시 대학교수양성은 유럽의 대학들, 특히 19세기후반)에 있어서는 베를린대학교총신자가 그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그러면 것이 미국의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자양성, 교수요원양성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를테면 20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표적 철학가로서 활약한 듀이 역시 외국유학 경험이 없이, 소위하 미국대학 출신자중의한사람이다.

이런에 불꼬부는 대학원 경원을 대폭 증원시킬수록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명실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로써 대학교수요원 배양을 위한 것이라하니 새삼 1870년대의 미국대학사활방불케하는것이 있다고하리라.

우리가 현재상으로나마 외국의 명문대학 발전과정을 단축해서 뒤쫓아가야 하는 일도 급하려니와, 또 한편에 있어서 외국의 주요대학은 보다 참신한 구상으로써 학문 연구에 가속도적인 진전을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세계주요 현대대학의 놀랄만한 진전에 비교는 도전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게커지도 연구실은 놓이 커져있고 강시도 연구의 템포가 업주지 않고 있는 외국의 대학을 생각해 본다. 이것은 실제로 그러하고 있는것이다. 최근시간과 함께 모든 연구실의 놓이 커지는 경우와 일맥나 대조적인 일인가?

대학사회가 잠들고 있을때그 사회의 진전은 속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사회가 등요립 대 학문연구는그만큼 파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사회의 발전은 위협을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사회가오직 그고유한 사명의 완수 (完遂)를 위하여 잔잔한 학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까닭이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주인성 극복이야 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요. 80년대의 도전이라해서 좋을 것이다.

Ⅲ

새로운 대학의 구상및 그실현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학사회의 개방력 성격이다. 종래의 대학은 이론바로운 학원연구도시가 한 나라 안에도 및 개체 건설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와같은 학원 연구도시에서 대학이 중심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 수많은 여러 종류의 연구소가 있어, 연구정보센터도 마련되어 분야별로 연구정보 교환에 봉사하고도있다. 더우기 이러한 학원 연구도시에 있는 연구소 하나 하나는 그것 자체가 웬만한 대학규모만한 것이니 우리는 이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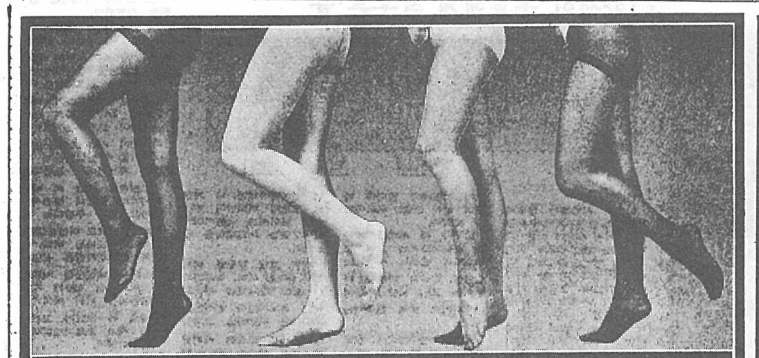
한 기 언

<서울대교수·교육학>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욱에 건설중인 연구도시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의식해서 건설중인 것으로서 더욱 많은 수효와 대규모의 학원 연구도시 건설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세계는 대학이 연합하여 공동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건설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사회는 자금자족을 이상으로 삼아 온 것 같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는 비근시안적인 시설이 어느 대학이나 있게 되는 데, 그러니만큼 구체만 갖추었다는 것 뿐이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있는 것후도 많은 것같다. 그러나, 분야마다 경말 본격적인연구불 추진시키는데 있어서는연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더욱 다양해진 비비안 팬티스타킹

*비비안 15D팬티스타킹
- 가늘고 올이고운 15D 나이론사를 사용했읍니다.
- 촉감이 부드럽고 착용에 부담이 없읍니다.
- 색상이 다양하고 아름답읍니다.

*비비안 20D팬티스타킹
- 스트렛치성이 좋아 견전이 가지 않읍니다.
- 색상이 다양하고, 촉감이 부드럽읍니다.

*비비안 면팬티스타킹
- 팬티 부분에 60수 면사를 사용 통풍이 잘되고 위생적입니다.
- 스트렛치성이 좋아 견전이 가거나 터지지 않읍니다.

*비비안 서포오트 팬티스타킹
- 스타킹과 거들 동시에 착화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어 줍니다.
- 고무사를 사용 질기고, 탄력이 강합니다.

이른처럼에쁘고
비비안
김은덕·노은용위
南宋나이론

화운데이숀을 올바르게 입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광고(여대㉣)

저희 유형산업에서는 여대생인 당신의 좋은 이웃으로서 화운데이숀을 올바르게 입으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일상생 100인의에 입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운데이숀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분석,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형산업
서울·도봉구 방학동 219
전화 992-2181~6
영업부 (직) : 992-3151

90A는 85B보다 크다?

현대여성의 몸매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역시 아름다운 유방입니다. 이유방이 위치하는 가슴선(Bust Line)을 경리해주고 젖옷을 입었을때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는 화운데이숀이 부라자입니다. 그러나 부라자는 무엇보다도 입었을때 편안하게 잘 맞아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잘맞게 입은 브랫은 조금만주의를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읍니다. 자신의 가슴크기를 경험히 제어서 아래 브랫에 따라 컵(Cup)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제품의 사이즈는 보통 85A, 85B, 90A, 90B등으로 표기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85, 90등의 숫자로 표시되는것은 그림에서와 같이 몸바스트를 포함한 가슴둘레를 뜻하며 A, B등으로 표시되는 것은 몸바스트의 둘레와 언더바스트의 둘레와의 차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A컵은 그 차이가 10cm이내일때, B컵은 12.5cm이내, C컵은 15cm이내일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몸바스트가 85cm이고 언더바스트가 75cm일 경우 85-75=10(cm)이므로 이런분은 A컵 부라자를 착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슴둘레(몸바스트, 숫자로 표시되는부분)은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가슴 그자체(유방 컵)의 높이는 실제보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의 자기 유방보다 작은 컵의 부라자를 선택하고 있읍니다.

90A는 85B보다 크다 또는 작다라고 그 크기가 비교될수는 없읍니다. 이제 저희 유형산업에서는 경부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민체위에 관한 데이타가 발표되는데로 B컵 부라자를 좀더 많이 만들어 특히 성숙한 전후세대인 젊은 여성들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몸 바스트(Top Bust)
언더 바스트(Under Bust)

* 몸바스트의 크기와 언더바스트의 크기를 정확히 재어서 그 크기의 차이에 따라 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대략 A컵은 그 차이가 10cm이내이고 B컵은 12.5cm이내입니다.

라보라
LABORA
라보라제품은 태평양체인스토아, 전국 유형백화점, 라보라직매점에서 찾으세요.

"모든 학원 관심사 「학보」로 수렴해야"

—'80 본보기자 신춘 방담

—할말 많은 사람들이 무척 오랫만에 한 자리에 모였군. 매년 이맘때쯤 가져온 우리의 방담이 올해엔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 가슴속에 맺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으며 지혜와 반성, 그리고 유명 무명의 독자들에 대한 요구와 비판으로 80년대를 열어 보기로 하자. 먼저 작년 한 해의 학보에 대해 그리고 사내(社內) 이야기, 신문제작 비화(秘話) 부터 시작해볼까.

—판심있는 독자들은 주지하겠지만 작년 한해는 의대학보사 (史) 상 파란과 곡절의 고비가 점철된 한해로 기록될만 해. 해마다구조적으로 3, 4월중 반복,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작년에는 한해를 두고 주기를 그리며 지속되었잖아.

—3월초 모꼬주의 원고게재 의뢰를 거절한 이유로 편집장이 곤욕을 치르고, 그 여파가 기자들에게 미치는가 하면 인터뷰 기사의 모인사 성을 바꿔 학보를 다시 찍어야했던 일부터 기억이 나는군.

—가장 아프게 기억되는것은 5월1일자 세민제 특집호 간지(間紙)를 제인해했던 사실이야. 배포직전에 기자가 쓴 세민제총평이 문제가 되어 일반부를 다시 찍어야 했던 필화사건이었지.

—제목과 내용이 상당히수정된 채 기자들의 참여없이 마음낳 재인쇄되어 나온 신문을 배포해야 할때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졌고 엄마루 전원사퇴소동도 한차례있었지.

—지금에야 회고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때 일은 학보가 존재하는 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야.

—학내, 그것도 학생행사문제로 기자의 시각을 제시할수 있는 최소한의 집필권리조차 유보당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사실로 남아야겠지.

—그 이후 이렇다할 필화(?) 사태는 없었지. 그러다가 작년 휴교이후 개강신문이자 79년도 종간신문을 4, 5일 늦게 배포할 때는 법어리생가슴이었지.

신문이 나온 다음에는 독자들은 방학중이라 물물이 흩어져 독자없는 신문이외는가 했는데 마침리 배포는 거의다 되었어.

—작년엔 개교, 창간기념호 12면발행등, 과거보다 증면발행이 몇번 있었지. 반면 혹수는 줄어들어야 했고 특히 2학기중반의 에기치 않던 휴교사태로 세번의 발행을 중단했지.

—몇 번 안 되었지만 종면발행은, 순간이라는 발행주기의 취약점안에서는, 기자들의 의욕고취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어.

—과격히 한 해였어. 조선일보 공무국에서 자정넘어일을 끝내고 밤샘대회에 불참해 새종로파출소 신세를 졌던 일, 어찬신세를 져야했던 날이 어느 때 보다 많았고, 조선일보 식당에서 6시넘어 편집국기자를 사칭, 공짜 밥만을 먹던 일. 어찬도 못 잡아 명동까지 걸어가다 어느 음식점 쓰레기통 옆에서 생전처음 노숙(露宿)을 했던 일. 때어보니 온 몸이 이슬이더군.

—쓰레기통 옆에서 반생한 한장의 의대학보신섬긴가.

동사(凍死) 하지 않은 것은 의대학보를 계속 만들어라는 하늘의 계시였던것 같아. (웃음)

—학보 제작방안로 이야기를 돌려볼까. 작년 초에 빈의자, 크로니클의 면배치 상모집기회를 학쪽에 관한 것, 인문사회과학 분야의것등을 편상모집했는데 응모편수가 3편에 그쳤더군. 상금이 작아서 그랬는지.

—독자에게 읽을기회를 제공해주는 현상응모기획등을 한두개 토학화시켜야겠어. 상금도 올리고.

—신문과 독자와의 관계가 흔히 얘기되는데 9월1일자의 크로니클에 대한 피해자(?) 의 항의 사태는 당혹스런 일이었지.

—서로가 반성해야 할 점이 많았어. 대다수 독자들이 정선된 학보에 무관심한반면 자신들의 이해가 직접 관련될 때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였어.

—학생독자를 먼저 의식하는 신문이라는 우리의 제작 모토가 학생독자로부터 곤혹스런 요구조건과 함께 항의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같았어.

소집단내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집적활동 더욱 고압게 우리의 머니리즘이 자국과 힘을 받을 수 있겠지.

—다수 독자의 신문이라는 전제만 일치하는 한 한줄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작년에 사건, 인기자 인사, 제후문제등으로 사건기자도 없는 채 악전고투를 거듭해야 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삭제해 있는 사태 (此內) 문제는전년 해결치 못한 채 학내문제, 기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을 해왔다는 사실이 그렇게 아이러니일 수도 없더군.

—해결의 방안은 키를 든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어.

「작년 한해의 외대」로 화제를 옮겨보지.

—작년은 개교 25주년이란 흥분(?) 과 함께 평사로 시작, 평사로 마무리된 한해였어.

—학기는 5월까지 세민제로 들뜰고 2학기 효국단 임원이 결정되자 마자 모의 올림픽 축제, 3학년 수학여행등로 이어져 중간고사가 있다, 없다는 등 론선도 있었지. 10월20일 전후로 학내소요의 남설(?) 이 일자 학내는 한차례 어수선한 고비를 맞았고.

—결국 10·26사태로 인한 1월3일 휴교가 79년을 결산해 버렸지.

—도서관 밖에 걸린 「···면학의 결실」이라는 면수학의 구호가 부고형게 면학이 아니냐 면연 (勉讀) 면학 (勉學) 면학의 해였어. 내·외요인도 상승작용을 했고.

—그러나 그 기간을 일컫는 방황의 흔기를 잡은 사람도 많은것 같애.

—학기 초에 등장했던 학풍논의를는의해보도록하자.

—한마디로 유무사까가 되어버렸어. 그러한 논의는결연히으로 있어야겠지만 에국단 활동과 학내행사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휴교관계도 있었겠지만 2학기 효국단은 측제무에는 활진상태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결국 효국단 이를 평사, 평사 이를 보이기 위한 것,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등식이 에년과 다름없이 흘러갔았구나 봐.

—평사의 취지가 실속이 없고, 공허한 느낌을 주는 전시적인 것들이 많았지. 평사주도측의 곡고만 대학관 (大學觀) 정립이 아쉽다고 할까.

—그리고 학생들도 정작 평사에 참여는 않으면서 열과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을 경우가 있지.

—그것은 평사 준비과정에의 다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된 문제야. 모든 학생들이 수익자인데 에산하나의 전액에서 결과까지 알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

—앞으로도 어떤 식의 대표기구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들이 어설픈 관료화되지 성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이 승리해야해.

—평사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의 괴생이 많았던 세민제 같은 것의 경우, for what, for whom이란 물음을 새삼 던지는 이들도 많았지.

—세민제 TV 녹화방영이란 이름하에 TV에 출연한 몇 학생이 대중연예오락프로에 참가하여 선의의 많은 의미인물을 낯뜨겁게 하기도 했지.

—작년 1학기 효국단 부서임원 몇몇처는 지나칠정도로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것. 세민제를 전후한 단계인 여가 있었고 결과는 모두가 피곤해졌다는사실뿐이거든.

—어느 못있는 학생은 풍역요원, TV출연등을 보고 「외대생의 연예인화」가를 성화, 했던 해라고 표껍기도 해.

—석어졸폭은 어렵지.

—석어졸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인게 없었어. 할정화를 의결지만 무엇이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하는지, 어느선까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기준도 불분명한 한해였 었어.

—말문을 열어놓으니 무섭게 떠져나오는군. 80년의전망이나 기대욕으로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를 줄어 나가도록 하지.

—판심사와 자율이란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관심사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계획학생의 복학 복교문제, 다음으로 학생활동의 자치성 회복문제, 그리고 교수 학생의 신뢰성수, 학문·교수(Teaching)의 자유를 위한 여건, 분위기조성문제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

—긴급조치와 관련된년 복학·복교생이 10명내외 복학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을 맞는 자세는 어떠야 할까.

—교수들이나 동료 모두야 무런 사시안을 던질 수는 없겠지. 캠퍼스를 떠나있는 동안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감싸줄다는 자세가 필요해.

—복학한 동료들 자신도 일종의 소명응주의에 들떠 그것만을 필재시 해 나머지 대학인 들을 이단으로 취급해도 곤란한 일이 있을것 같아.

—화해 분위기가 부르익는 추세속에서 대학에도 복재논리가 등장해서는 안되겠지. 물론 정도의 융통성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확연히 드러나는 해바라기적요소들은 자제에 청산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구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등도 학림의자료, 학생활동의 활성화와함께 기대해 볼수 있겠지.

—방방 코큰기레이션의 활성화, 수월을 위해 학보도 10일주기, 4면발행—기자들 작업 리듬상실, 외국감뫼—배포 (발행) 날짜 부의나—독자와 무관심—읽히지 않는 신문의 악순환이란 드러난 내력요인, 외적 강제등을 올해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걷혀져가야 해. 신문은 읽혀져야한다는 대전제를 위해서도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바른 가치관단형성과 자질 올리실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봐. 학보 제작도 신학기에 1년의 계획, 편집방향을 장기적 안목에서 정하고 비평을 제시해야해.

—우리가 하고 싶던 말은 그동안 학보 지면을 통해 무른히 주장되어 왔다고생각해. 어려웠던 해일수록, 그것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이상의 최악은 없는것이야. 사명감과 이념등은 상황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상황이 남겨준 유산은 더욱 견고해진 사명감이라고 생각하해.

◇참석자

김강민	기자
신선희	기자
곽해선	기자
김형만	기자
김경신	기자
이인우	기자
박혜영	기자
최준석	기자

때 : 80년 1월 1일
곳 : 본사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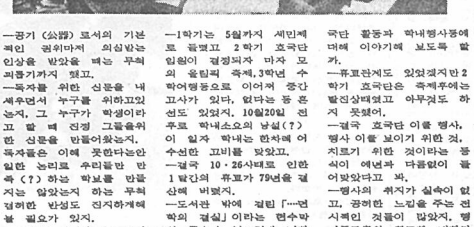
대학내 「해바라기」성 청산되어야 마땅

교수·학생의 「학풍」개념 근본적 차이있어

작년은 행사로 시작, 행사로 끝난해

드러난 내적 요인, 외적 강제 걷혀져야

필화아닌 필화, 세번째 신문 재인쇄



—공기(公器)로서의 기본적인 권위마저 의심받는 인상을 받았을 때는 무척 괴롭기까지 했고.

—독자를 위한 신문을 내세우면서 누구를 위하고있는지, 그 누구가 학생이라고 할 때 진정 그들을위한 신문을 만들어왔는지.

독자들은 이에 못한다는안일한 논리로 우리들만 탓독(?) 하는 학보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는 무척 경허한 반성도 진지하게해 볼 필요가 있지.

—그럼께 의대학보를 포함한 모든 대학 신문이 그렇듯이 한 대학에 독자와 신문은 상호 「In—Put」「Out—Put」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변명같지만 독자가무척하고 무관심할 때 신문도 갖은 나락 (衰落) 에빠지기 쉽지.

—그런 의미에서 독자의항의는 많을수록 좋다고봐.

그러한 항의가 자신이속한 집단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때 우리는 한층 더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야.

—학풍의 개념부터 불명확했어. 캠퍼스 유인물에 「고가를 수지타고···」등의 문구가 있었는데 이러한것들이 학풍으로 오인되는사례가지 있었을 정도야.

—어설프다고 표현되기도하지만 「국제성」이라는 명제이 의대학풍의 과정과 표가 될 수 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우너크니스」만을 강조한나머지 국제행사, 대회등에 몰역기능요원역할을 하는것으로 오인 (誤認) 되어서는 대학본연의의 임무가 흐려지기 쉽지.

—특수와 보편이 조화롭게 항쟁이 나와야해. 의대학풍의 뼈을 이어온 소위 정신사적 「보수세력」이 있다면그것을 먼저 찾아 내야하고 그것이 찾아진다면 선의의 「반동세력」도 나올 법한 것이고 이런 맞물림요소 학풍은 형성되지지.

—학풍논의의 논의를 몇는의미에서 것째 학생들 사이의 자생적 과금, 들렉 프수가 주장하는 학풍과 학생이 주장하는 학풍개념의 근본적 차이를 일치시켜나가는 일이관건이될것같아.

—학풍과 학내행사는 불가분리의 것이 되겠는데 효초에 학생들 사이에서 자생적 (自生的) 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5월달의 학풍논의를 위한 모임에서도 심질적인접근책을 안출해내지 못하고 말았지.

—학풍정립의 개념부터 불명확했어. 캠퍼스 유인물에 「고가를 수지타고···」등의 문구가 있었는데 이러한것들이 학풍으로 오인되는사례까

"학생활동 자치보장 우선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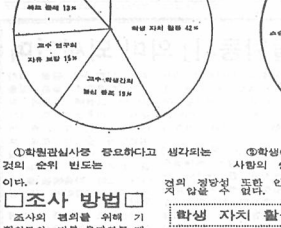
본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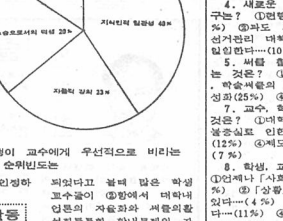
어떤 높고 이상적인 계기에 의거하여 행동하지않는 시대의 「번화」는 위태한 뿐이 없었고,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번화」의 시기를 맞은 듯한 최근의 국내정정 (國內政情)에 따른 학원문제에 관해 『「지식」「하방」「입법」로 다스리는 · 대상이 아닌 고유권의 주체가 되고 자기 존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김옥길교표) 는 이상적계기에 부응해 애써야하나 『학원 관심사의 집전체 (?) 해결』의 방법도 설정되야 할 것이다.

특별히 본 대학교로서는 건학 사반세기를 지나는 이 싱점에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본고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기획의도 또한, 대학교육권의 「자기 주체」로서의 「학생」「교수」「당국」의 본분을 명시확인하면서 「학원의 비정상적인 번잡사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대학구성원간의 자율적 의견을 집약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1>





①학원관심사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의 순위 빈도는

③학생이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비리는 사항의 순위빈도는

이다.

□조사 방법□

조사의 편의를 위해 기획의도와 다른 용당자를 제외한 본대생 무작위 추출 80명과 교수15명, 학보당국자 5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것이며, 설부교수와 학교당국자와는 같은 설문을 구두로 조사한 것임을 밝혀둔다. 각 문항에 대한 법도의 자유기술을 두었다.

조사내용분석

설문 1은 「학원관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해 보려는 기획의도로 관심사의 순위 1위로 제③에 관심도를 나타내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학생간의 불신풍조 해소와 연구교수의 자율보장은 거의 같은 비율로 ④복학생복교문제와 ⑤「스·위·튜니케이션 소통문제」의 순(順)으로 나타나 학원 관심사중 가장 시급한문제를 제반해소로 시사하고있다.

따라서 가장높은 관심도를 보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각각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장많은 학생 교수들의 의견은 「개인의 가치관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데 있음을 알 수 있고 「언제나 「사회적 상황」에 참여, 주도해야 한다.」「인구면하에만 얽매여야한다」「가면의 역 요인에 따라…」의 순(順)이었다. 이는 대학은 항상 사회를 주시하고 있으리라 짐작되고 있다.

복학생의 복교에따른 후유증으로 「복교생이 갖기에는 버거심리」으로 점차 표면화고 있는데, 이로서 자생되는 학학생과의 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예기되는 바인데 전 10에서는 이미 「복학생들의 이질적 정황을 인정하나 후배는리는 관단하다」라는 현재학생들의 의견으로 볼때 복학생의 복교에 따라 자생되는 학생상호간의 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9의 각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려성이 먼로 일다고 본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낙관적인 견해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복학생과 재학생의 겨허한 마음자세에서 그 원인한 유과심 이외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면학풍토 대학구성원

자율적 면학풍토조성을위해서는 문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 학생, 대학당국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기구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에서 학생, 교수, 대학당국자의 기대들 렷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본보를 통해서도 제시되었으리라 본다.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기관에 거는 기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야 할 것이다.

□결론□

애초의 기획의도에서도밝힌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자율권」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볼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 문항자체는 무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법적 「자율권」을 향한 일보 전진임을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 1년 정진적개혁(reform)보다는 점진적개혁(innovation)에서 그 「점진력」이란 의미의 정당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김명만기자>

학원의 불신풍조는 외부상황때문 63%

호국단 대신하는 과도기구 설치 바람직 51%

표의 「판료화」는 이미 누차 지적된바있는 병폐중의 하나였던바 물음3항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호국단개선은 일단 「학생대표의 식구조」부터 개선되야 한다는면 의견이 모아지고있는 것이다.

경제된 상황의 논리아래서 「Identity crisis」는 그나마 경세된 메카니즘에 대학내의 어른반영의 순환으로 자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때 많은 학생 교수들이 ③항에서 대학내 입론의 자율화와 써클의활성화를통한 학내문제의 자치력 해결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도 주목해야할 일이다.

새로운 체제를 전제로한 과도적 단계를 물는 문4에서는 의외로 현행호국단임원 일부가 계속한다는의견을 상당수가 표명했는데이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때까지의 중단없는 학생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해볼수 있다. 또 학생대표의 선거들위한 준비위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는데 써클보조비 및 동록규정의 완화 ①에서 학생들의 의견을실렸수가 있는것이다.

교수 학생 문제

그중한 대학의 자율성이 유보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지니는 기본의미마저 훼손되어 버렸던 문제가 바로 「교수 학생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 유보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지니는 기본의미마저 훼손되어 버렸던 문제가 바로 「교수 학생 문제」이다.

그중한 대학의 자율성이 유보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지니는 기본의미마저 훼손되어 버렸던 문제가 바로 「교수 학생 문제」이다.

복적생 문제

현재 본대학생으로 복적생은 19명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업, 군문제등으로 전원 복적이 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짐작되고 있다.

복적생의 복교에따른 후유증으로 「복교생이 갖기에는 버거심리」으로 점차 표면화고 있는데, 이로서 자생되는 학학생과의 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예기되는 바인데 전 10에서는 이미 「복학생들의 이질적 정황을 인정하나 후배는리는 관단하다」라는 현재학생들의 의견으로 볼때 복적생의 복교에 따라 자생되는 학생상호간의 융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9의 각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려성이 먼로 일다고 본다」고 의사를 표명하는 낙관적인 견해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복적생과 재학생의 겨허한 마음자세에서 그 원인한 유과심 이외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면학풍토 대학구성원

자율적 면학풍토조성을위해서는 문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 학생, 대학당국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기구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에서 학생, 교수, 대학당국자의 기대들 렷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본보를 통해서도 제시되었으리라 본다.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기관에 거는 기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야 할 것이다.

□결론□

애초의 기획의도에서도밝힌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자율권」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볼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 문항자체는 무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법적 「자율권」을 향한 일보 전진임을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 1년 정진적개혁(reform)보다는 점진적개혁(innovation)에서 그 「점진력」이란 의미의 정당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김명만기자>

스터디그룹 분위기

방학중 캠퍼스, TV 영향인듯

80년대의 새 출발을 맞기는듯 신년 첫눈이 내려 정려마저 감돈던 연휴중의 이 문밖은 조금씩 눈이 녹으면서 다시 칩기를 되찾고 있다. 하얀 눈위로 낯갈래 이어지는 발자국의 행렬이 동면(冬眠) 중의 캠퍼스를 흔든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3층 열람실과 영자문 복잡을 각종 복잡에는 연일 붐비는 학구파들도 성시(盛市)를 이루고 있으며 예년과 비교하여 다소 인원이 늘어나 도서관만은 연중무휴 성시(盛市??)를 누리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번 방학중 가장 큰 특색은 아마 「스터디그룹」의 탄생일 것이다.

소설과 TV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하바드대학의 스터디그룹을 방불케하는 모임붐이 방학동안 자생(自生), 활동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과의 1, 2학년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습, 회화,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매주 1, 2회씩 학과장실이나 도서관에 모여, 토론하고 발표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전(全) 대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직한 기대를 낳게하고 있다.

스터디그룹은 그동안 일려졌던 학업을 상호보충하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하는 순수파와 어학공부를 위한 회화클럽위주의 실용파, 외대의 학점과 성적을 잘 살려 학외위주의 전련입법적 학습을 지향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습득키 위한 새로운 유(類)의 탐구파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성향 (指向) 을 보여주고 있다.

I과의 스터디그룹이 첫번째의 경우이고, J과장 비롯한 몇개학과의 회화클럽이 두번째, R과가 중심이룬 가칭 「시네리아학회」라는 지역사정연구회가 세번째의 대표적 케이스로 뜻있는 방학을 보내는 외대인들은 곳곳에서 볼수있다. 재활학교의 선생님 외대인, 그리고 학생들 요구하는 1학년의 한 외대인은 모대학 건물등축공사장에서 추위를 잊은듯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는 이 대학교는 곧 집단 인력 (?) 이 있는것 같다며, 껄껄 웃는다.

여기저기서 쏘기쯤고 밤에 한 외대인을 만날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나 하는 의구심이 한낱 기우 (杞憂) 임을 확인하게되는 것도 방학중에만 가질수 있는 묘미이, 아니가 생각해본다.

<이인무기자>

교수 동정

○…형어과 김미자부교수는 오는 10일부터 2월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동시회학비교연구 및 논문발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예정이다.

○…정치외교학과 김계수교수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현대학 부설 동구문제연구소 학술장소및 고려 연희와 시설을위해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아랍어과 김용선 부교수는 오는 11일 발레이지아로떠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이슬람학술회의 (約) · 때(太) 지구 평기 심포지움에 참석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더많은 지원, 더많은 결실"

고시 인구 저변 확대 있어야

고시에의 길이 험난하다 함은 그야말로 숱한 합화에서 읽어왔던 것처럼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매학 재학생이나 혹은 그 주변하도록 복희 남학생의경쟁우에는 고시를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것이다. 그것은 고시합격은 출세의 지름길이라는동의식이 조금도 무리가 없게끔 우리사회의 가치기준이 단립화되어 있다는데도 분제점은 남아있지만 아무튼 고시에의 도전은 소수의선택됨 인지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해질수밖에 없다. 본대학에서 학생회관위에 자리한 「고시 연구실」이 생긴것도 분명치는 않으나 매우발은 연륜을 갖고있다.

처음에는 각 「고시」의 구별이 없이 합동연구실로등장되어 있다가 사법고시연구실 (지도교수 · 이공성), 행정고시 연구실 (지도교수 김명수), 외무고시 연구실 (지도교수 · 노명준) CPA (회계사고시) 연구실 (지도교수 · 박찬일) 등으로 분리된 것이 2,3년전으로, 학교당국의 더욱 적극적인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고시연구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제 그런은 앞으로는 더많은 고시합격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것은 비록 짧은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밑천이 이제 서서히 발휘되기시작했기 때문이고 학교당국의 지원도 많이 좋아졌다는데 기인한다.

그러한 일련의 지원위에 바라고 싶은 것은 물는 기자의 질문에 행정연구실의 L군은 『고시특강이 이제부지는 사학인 경로로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사회에서 주선이 되어 좋더 중은 강사를 초빙해서 질높은 강좌가 피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큰 바램이다』라고 예기한다.

그밖에 조명 · 소음등 환경이 문제되는 점도 있고, 특히 세면장과 화장실 설비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예기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조건들은 역시 일단은 외부적인 것이고 + α 적인 성격을 지닌 것일수밖에 없다. 본질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 또는 결넘의 강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2월의 외부고시로 시작해 80년도의 고시가 막을 올리게 되는데 「세계는 넓방에 있어야만 경쟁하는 및날 학생들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많이 이름을 대면해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문섭기자>

기자의 말결

고시 합격자 상승추세 지속 되길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연력은 짧고 여건은 그리 좋지못하나 79년에는 외무고시에서 10명, 행정고시에서 7명의 합격자를 각각 배출하는 상승효과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들이 거의 이러한 연구실 출신이라는 사실을 증시할 수 있다.

본대학의 특성으로 보아 「외무고시」에 비교적 강한편이라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외대에서는 외시(?)」라는 이미지가 고정관념화되어 자칫 진정한 외대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관련하여회계사고시연구실의 K군은 「외무고시에 대한인식이 덜되었어 지금으로서는 저변확대가 가장시급한 문제」라고 말한다. 그만큼 다른 고시를 하기에는 본대학의 여건이 갖 갖추어지지 않아 하려고 드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얘기이고 보면 이와 관련한본대학의 특이한 교육영중 투드러진것이 부전공제도의 의무화라고 보아 고시준비생들은 물론 대부분학생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받아 사학부로 부전공을 택하는 것은 법 무리가없지만 법 상학쪽에서 외국어학부로부전공을 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법 · 상학부 전공의 성격상 그 자체가 소홀해질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모자는 그러한 점이 다른 부분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부전공제도가 대폭 수정되었다. 이점에 덧붙이는 외국어학부와 법 · 상학부간의조화있는 만전을 꾀하는 학

간교한 그것이 아닐을

○…경신년 대망의 80년대에 크로나를자 독자 여러분에게 세배드립니다. 쥐승이의 피가 간교한 그것이 아니고, 쥐승이의 재주가 사악(邪惡)한 그것이 아님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는에 쌓인 캠퍼스를 채우고 있는 다가올 봄에 미만 설레임이 혀 뭉한 기타팀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미망(迷望)할 것인가물고 이 생각하며 방학동안 새해 복 흘뿌 받요시고, 몸조심 하시고, 건강하게 새봄에 만납시다. 그때.

○…방학중에도 도서관은 함구의 열기가 가득.

그중 보방술국 TV프로 「하바드 대학과 공부벌레들(The Paper chase)」에 나오는한국인. 외대판 「스타디 그룹」이 우주즉 숙처럼 생겨나, 함심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진기한 경황을 목도할 수 있는데, TV의 악영향만 보아 왔던이 처음엔 아리한 주세마저 악영향으로 흔든하는 흔삼조도 있었다고, 아뭏든 이러한악영향 (?) 은 아무리 지나체도반가운 현상임에는 틀림없는것.

○…난방을 위해 연수원, 교무처등 학내 각부처에 설치된 태평이자구명인 석유난로가 퍼져 그을음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소동이 곳곳에서 자주일어나 난표는 수십개에라기 난표전문가는 한사람뿐이니 신고를받는 수위 아저씨를 불평이 고조.

「난로 퍼져 올지말고 옷으면서 난표전문가 종림」「사람퍼져 주 죄말고 옷으면서 신평난로」한구호도 외쳐볼직 한 일 (?).

○…류보가 좋나고 계장이 퍼자마자 곧 방학에 들어갔습인지 방학이 끄고도 여년보다 학교에 나오는 흔삼조가 훨씬 많은 느낌.

「학교에 나오면 나을 수록 좋다」는 상식과 「방학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상식의 틈에만 대결 중앙의 상식이 득세한 것은 도도한 대세의 흐름인 모양.

○…새해들어 교문 앞에 낯선 게시판 하나가 동장에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서있는데.

게시판 제목인 즉 「시민을 위한 광보판」을 자랑하고 있어, 자리를 잘못 찾았다는 느낌이며 가중.

이문 Chronicle

다 끝난 일이라지만

먹물과 18회 졸업

김정란

어두움을 향해 걷는다,
삶이 먼지투성인 얼굴로
다가왔다. 우리가 어두움에서
태어났듯, 그에게로 돌아가
받아 들이지나
또는 돌아가거나
아니면 굶주면서 살기

삶의 먹복(福目)들이 구체적인 힘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갔다, 우리가,
창으로 가냘해진 우리가
늘 해지는 언덕의
호숫가에 앉아 있다

오 잊힌 위대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불안(不安)과
어두움과 기괴함으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고통을 아들이라 부르며
산며 산며 지친 채로
고통을 전옷으로 입을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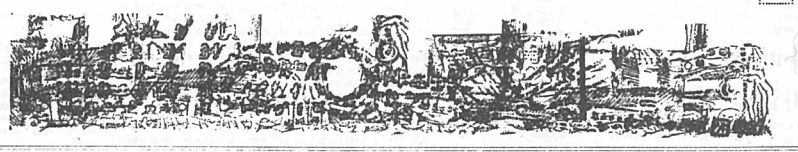
언제나 은유(隱喩)인 당신
꽃과 바람과 안개 밟어 오시는
당신은 무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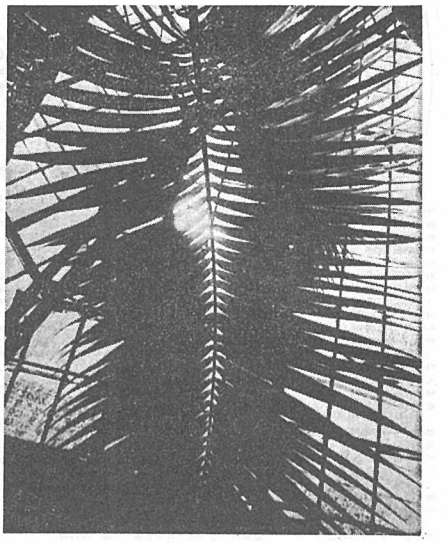
우리가 안흑 속에 눈을 박는 일은
배웠다. 안흑 속에 땀 속에,
또는 우리의 피줄 속에까지
불을 키우며

어느날 문득 우리가 우리의 피를
부르며 일어나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불의 날개, 내 주여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용렬함을 볼지르며
우리의 갯빛 허무를 볼지르며

<먹물과 18회 졸업>





갈라진 잎사귀 틈서리로
차분히 빛의 자리바꿈이 진행되고
있다.
한 해의 다가옴에 슬며시
들러서는 지난 해의 잔영 (殘影) 들이
이제 막 제 모습을 거둬간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기미 (己未) 의
매너리즘에 빠지려 하는가.

베란다에 놓인 분재 (盆栽) 를
바라보며, 요행히도 살아가는 이식된
자연의 의연함에 더이상의
느꺼움은 갖지 말아야 하리라.

비록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과 가나긴
여정의 지침으로 하루 해를
방황의 숲 속에다 들지라도

쏟아지는 햇살은 이처럼 넓기만 한
가.
부디 경신 (庚申) 의 햇살위엔 무거운
매김씨를 붙이지 말도록 하자.

<신선희 기자>

신년 미래 공상소설

대학, 1984년

『옛 속담에 <먹물 든자는 어린애 갈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먹물잡이들이 모두 어린애처럼 순수하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러』

「학사문제」에 관한 우리의 특별강좌는 성공적이였다. 그것은 미래 우리가 에상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하기야 대학은 자신의 상아탑을 주장하기에 앞서 민족사회속의 대학이란 할까 그러한 좌표와 역할을 찾아냈지 오래였다. 연사들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였었다. 대학이란것 자체를 독립적인 기능인 양성소쯤으로 치부하였던 과거의 시구려 낡상이 얼마나 갈뜩 채 있었던가 하는 것도 충분히 지적돼 있었다. 옛날 시골에서 얼마전 양곡을 갈 농가마다 주렴하여 모든 마을 자식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던 그런 공동사회의 서당의 좋은 면을 대학에 살린지도 오래 되였다. 등록금 마위로 고생을 했다든가 재수니 삼수니 해서 대입시험 공부하느란 고통을 겪었다든가 하는 여이없었던 시절을 회고하는 연사도 있었다. 「학사문제」에 관한 우리의 특별강좌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덕 입은 바도 컸었을 것이다. 실상 「학사문제」란 특별강좌의 제목만 해도 그러했다. 우리는 대학과 사회, 또는 대학사회 나아가서는 배움 (學) 이 보편화된 사회에 관한 강좌를 학생회 주관으로 열었던 것인데 매스컴 기관들이 이를 즐겨 「학사 (學士)」 강좌로 표현한 것이었다. 개중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 기사를 쓴 신문도 있었다.

『회상하기에도 무엇하지만 과거에는 「학사문제」라 하면 벼모 학생, 교수 입용문제등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였던 셈이 있었다. 그러한 학사문제 (學事問題) 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학과 사회를 마지 띠 힘되고 쩍대쩌이기조차한 관계로 보았던 시절이 있었다는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기야 오늘날 대학과 사회에 바늘구멍만한 통도 밀어질 가말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로 되어있다.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불행하였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강한성 노인을 연사로 초빙하였던 것인데, 육의 티라고나 할가 거의 성공적이였던 이 강좌가 그만 여기에서 약간의 차질을 빚게 될 줄이야 미처 에상하지 못했던일이었다.

전에에 따라 나는 사회를 보았으며 강한성 노인을 소개한 끝에 이렇게 말했던다.

『오늘 우리가 강노인을 모신 것은 대학과 사회가 어떻게 힘을 합쳐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강노인은 행복하지 못했던 사회에 있어서 대학이 져어야했던 불평한 입들에 관하여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회를 마치고 좌석으로 돌아오자 『많 필가?』 하고 김인분은 나에게 물었다.

『조금만 참아봐. 나는 학생이 제 그러는줄아니까』

강노인은 웃었다. 『특별강좌에 초빙돼온 연사 주제에 에킵 하려거든 똑똑히 해라, 하는 것이겠지러?』

『네 그래요. 』

『나와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생님들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하지마라>하는말이 어째서 꺼끌 있는가 하면』 강노인은 김인분의 이야기를 일단 묵살하면서 말을이었다. 『그야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이야기이니까 어려분까는전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대학이라는게 그만큼 속을 썩혀었단 말이, 참 격세지감이 드는군그려. 』

『그 시절에 그게 제 그렇던가요?』 김인분이 다시 물었다.

『그 시절에 제 그랬었느냐? 그야 변하지. 그 시절에<학사문제>를 다루어야 했던 사람에게는 더그랬어. 오죽했으면<생님들의 무엇이 더 구리더라>하는 은어까지 있었을라구?』

『지금 그 이야기는 쥐소하세요. 도대체 무슨 불경스런 소리에요?』 김인분이 항의했다.

◇박 태 순

◆약 력

소설가·1942년 평해도 신천출생·서울대 영문과 졸·「세대」지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데뷔·「사상계」, 한국일보등에 입선

작품 : 낮에 나온 반달/무너진구장/어제불면바람의 다수

『암 쥐소하구말구. 그러나는 지성인을 경계하는 사회, 위정자들이 대학교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지가 됨에지는 시대의 비극을 자비롭에게 알려주고 싶은거야. 자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거든. 이렇게 됨 때 생님들은 바로 <남산골생님>이 되거나 <말장말이 생님>이 되는 거야. 민족과 사회를 위해 그 경로를 펴야할 생님들이 발붙일 곳 없고 입을 열지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 조선왕조 시대의 남산골 생님들이거나 말장말이 생님들이 그랬단 말야. 더할나위없이 가난해져서 밥 작말이 나박김을 심고다니는 주제에 오기만은 하늘을 찌를듯했단 말야. 아니지.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지. 영국이라든가 하는 나라에서도 그랬던 모양이야.』

강한성 노인이 느닷없이 영국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는 바람에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응빼가 1984년 아닙가? 그런데 영국의 무슨 소설가가 20세기 초엽에<1984년>이라는 미래 공상소설을 썼다면서?』

『조지 오웰이에요. 』

『그래서 신문에서들은 그 영국소설가의 공상소설이 맞느니 하는데, 그것을 보면 20세기초의 영국사회의<생님>들도 쓸데 없는 불평불만이 많았을거야. 그 영국 소설가인가도 많이 불려다녔을 게구 고초도 겪었었지만…왜냐하면 쓸데없는 공상을 하는자들을 내버려두질을리 없으니가 말이…하여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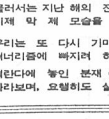
『조지 오웰이<1984년>이란 소설을 썼다고해서 고초 겪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건 아마 학생이 잘모르고 하는 소리일 게야. 자세히 알아보게. 하튼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고하니…또 속담을 인용해야겠군. 옛 속담에<먹물든자는 어린애 갈아야한다>는 말이 있지러. <먹물든자>라는 건 글공부께나했다는 사람을 일컫는 거야. 옛날에는 먹물갈아 글공부를 했으니 먹물든 자는, 오셋말로 책께나 읽고 배껴본 지성인을 말하는것이니겠나. 바로 자비들도<먹물든 자>들인 게야. 그런데 먹물든 자는 어린애 갈아야 한다고했거든, 사실이 없고 순진해야 됨다는 얘기겠지. 먹물든 자가 고활한거거나 영리하면 자기 번속만 제주껴고 범벅들며이니 큰일이지.

1984년의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의 대학이 출세주의자들의 생존경쟁터가 아니고 바로 자비들처럼 대학에서 공부하는 먹물잡이들이 모두 어린애처럼 순수하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러,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고 있고나 우리 대학이 이렇게됨 것이고, 자비들이 어린애처럼 순수한 먹물잡이들이니,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살찌겠는가, 더이상 지나간 불행한 시절의 대학 이야기는 할것도 없겠군 그래. 그 무슨 공상소설이나 썼다는 영국 소설가 따위로 헛된 공상을하는 먹물잡이도 1984년의 우리고 사회에는 있을 턱이 없지 말이야. 』

강한성 노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우리는 장노인이 말하는바<옛날의 대학>이 과연 어떻는지 전혀 실감있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혀여도 오늘의 대학이 민족사회와 폰연일체로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동의할수 있었다. <먹물든 자는 어린애 갈아야 한다>는 그런 먹물든 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줄탁동시」의 의미 되새기며



박 창 희

새해를 맞이 하였다.

지난날을 돌이켜서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과 새해에 임게 되는 많이 꼬학의는 가슴에 울렉렁 죽 긴지하게 생각해볼 일이 있는것 같다. 교사 (敎師) 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으로 줄탁동시 (啐琢同時) 란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 할때 그 안에서 제부리로 껍질을 톡톡 쫄 (啐) 것을 하면 같은 순간에 어미닭이 밖에서 박 (琢) 것을 하여 껍질을 쪼아줌으로써 한마리의 병아리가 비로소 태어난다. 송 (宋)이래로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제간의 기연상속 (機緣相屬)의 경우와 비유하였다.

어미닭은 이 것을 그 본능에서 어렵잖게 해내겠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 수선 껍질안에서 톡톡 쪼아오는 혼신의 가느다란 소리를 듣는 귀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이럴 때 사제간의 기연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어미닭이 껍질을 쪼을 기회를 기다리던 껍질안에서부리 어떤 년 아홉으로써 한마리의 병아리가 비로소 태어나다. 송 (宋)이래로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제간의 기연상속 (機緣相屬)의 경우와 비유하였다.

어미닭은 이 것을 그 본능에서 어렵잖게 해내겠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 수선 껍질안에서 톡톡 쪼아오는 혼신의 가느다란 소리를 듣는 귀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이럴 때 사제간의 기연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어미닭이 껍질을 쪼을 기회를 기다리던 껍질안에서부리 어떤 년 만 껍질안에서부리 어떤 년 (啐)것을 하면 같은 순간에 어미닭이 밖에서 박 (琢) 것을 하여 껍질을 쪼아줌